

아무 자객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교훈으로 살아 오신 세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가르치고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사야서 54장 13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10월 13일 (토) 제 170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홈스쿨링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뉴스위크, 부모가 선택할 자녀 교육방식 권리보존 역설 보도

학교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부모에게 교육을 받는 재택교육을 홈스쿨링(homeschooling)이라고 한다.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뜻에서 언스쿨링(un-Schooling)이라 불리기도 한다. 학교라는 제도가 일반화되면서 학교 교육과 부모의 양육의 역할이 분리됐지만 공공교육의 확실적인 교육에 반대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이 확산되고 있다. 요즘 미국의 홈스쿨러들은 거의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그런 대안적인 교육

접근법을 믿고 실행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겪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주류사회에서도 공공교육의 대안으로서 자리 잡은 홈스쿨링을 주정부가 감사, 감독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법안들이 논의 중이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다시 한번 홈스쿨링의 역사와 현재를 소개하면서, 그 자유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보도한다(HOMESCHOOLING FREEDOMS MUST BE DEFENDED AGAINST PARTISAN CHALLENGES).



홈스쿨링을 주정부가 감사 감독할 수 있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홈스쿨링은 1993년 합법화된 이래 지난 25년간 지속되고 있다.

1977년 존 홀트가 홈스쿨링을 채택한 가족들을 서로 연결하고 격려하기 위한 최초의 뉴스레터 '학교교육 없이 성장하기(Growing Without Schooling)'를 제작했을 때 우리 중 다수는 기저귀를 차고 있었을 것이다. 홀트는 학교 밖에서 능동적인 배움의 길을 찾는 '언스쿨링' 운동의 창시자로 홈스쿨링과 대안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교육 개혁가였다. 그를 비롯한 여러 사회 개혁가들의 노력과 투쟁 덕분에 1993년 미국의 모든 주에서 부모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합법화됐다.

홈스쿨링이 완전히 합법화되기 전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안 교육의 길을 개척한 초기 홈스쿨링 부모들에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당시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는 홈스쿨러가 약 200만 명에 이른다. 따라서 이제 홈스쿨링은 합법적인 대안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홈스쿨러의 수가 많아지면서 다양성도 늘어나고 있다. 인종·계층·종교·민족·이념·철학이 다양한 가족들이 자신의 고유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홈스쿨링을 선택하면서 그 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흑인 학생은 학교에서 제도적인 차별을 받는다는 우려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미국의 무슬림 사이에서도 홈스쿨링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스쿨링이 널리 용인되고 미국의 다원적 사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해가고 있

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자만에 빠지기 쉽다. 우리 대다수는 무단결석 감시자가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일을 더는 걱정하지 않는다. 또 홈스쿨링에 좀 더 관대한 동네로 이사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우리는 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느냐고 이상하게 보고 참견하려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평일 오전에 자녀와 함께 야외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아주 다양한 교육 접근법 중에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학교 당국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최근 들어서야 홈스쿨러들이 누릴 수 있는 대단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기 쉽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집에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자유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전의 용감한 부모들이 고문을 겪으며 쟁취한 것이다. 그들의 선택과 투쟁 덕분에 지금 우리는 홈스쿨링을 어렵고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다.

홈스쿨링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그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3면으로 계속)

종이신문 독자가 더 나은 뉴스 소비자

니먼저널리즘연구소, 인디펜던트 신문발행 중지 후 뉴스도달범위, 영향력 측정변화 연구결과 밝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일간 신문사가 대규모로 문을 닫지는 않았다. 사실 그보다는 대규모의 수축이 이루어졌다. 신문사가 문을 닫는 속도는 20세기 후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신 모든 일간 신문사는 해마다 점점 더 작은 뉴스 편집실과 적은 예산을 갖고, 적은 인쇄 부수와 페이지의 신문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수축 그 자체로는 한계가 있다. 2018년 2분기, 미국 언론 맥클라치의 신문 광고 수입은 매년 26.4%나 떨어졌다; 미국 미디어 그룹 개닛은 19.1%, 트루크는 18%나 떨어졌다. 그들은 새로운 신문 구독자들을 더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 구독자 역시 디지털로 옮겨가거나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뉴스를 제공하거나, 아예 폐쇄하는 방안 중 하나를 취하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종이신문에 매우 우호적인 발행인조차 당신에게 언젠가 "신문 인쇄비용"과 "신문에서 오는 수입"이 교차하면 그때는 신문 발행을 멈춰야 할 때라고 말할 것이다. 남은 질문은 그게 언제인지에 대한 것이다. 2년? 5년? 10년? 30년?

그렇다면 언제든 간에 신문 발행이 사라질 경우,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신문 독자들이 디지털 독자로 변할까?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지역 언론 뉴스를 읽는데 아침 식사에서 신문을 읽는 것만큼 비슷한 시간을 소비할까? 독자들이 인터넷이 제공하는 모든 다른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되며 그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않을까?

니먼저널리즘연구소(NiemanLab)가 전해주는 닐 서먼과 리처드 플레처의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한다(What will happen when newspapers kill print and go online-only? Most of that print audience will just...disappear).

콘텐츠 소비시간 신문구독자 81%, 디지털플랫폼 19% 차지 인쇄매체 신문 경쟁자는 적지만 온라인에서 경쟁자는 무한

서먼과 플레처는 30년간 종이 신문을 발행하다 2016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뉴스를 제공하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의 사례를 연구했다. 인디펜던트지 뉴스의 도달 범위와 영향력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3면으로 계속)



2면

시론 최해근 목사



7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ATK 정회원 월드선대학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할렐루야 백화점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유료 특별할인 판매
www.laboookusa.com / cbc0191@hotmail.com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9838 Garden 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HEAL OUR LAND 2018
2018 다민족연합기도대회 Multi-Ethnic Prayer Gathering
회개·부흥·회복·선교
일시 2018년 10월 28일 주일 오후 5시-8시
장소 은혜한인교회
문의: 강순영 목사 (310) 995-3936, 양경선 목사 (213) 255-1725
www.gracemi.com



시론

2018년 우리가 걷는 길....



최해근 목사 (봉고메리교회)

지난 6일 토요일 오후 늦게 미연방대법원의 114번째 판사로 브렛 캐버니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고 아내와 두 딸이 보는 가운데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상원법사 위 앞에서 성추문과 관련된 청문회를 한지 정확하게 1주일 만에 FBI 조사를 마치고 취임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원에서의 마지막 투표는 찬성 50명(공화당 49명, 민주당1명), 반대 48명(민주당 47명, 공화당1명)으로 철저하게 소속 당을 따라 찬반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원에서 양분(兩分)은 곧 바로 국민들 속에서도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상원 법사위에서 좀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처리를 했더라면 국민들의 마음이 양분되고 갈등하는 그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36년 전 자신이 십대 중반이었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캐버니 판사의 대답은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칩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0년대 초반은 오늘날과 달리 핸드폰이 대중화되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구체적인 증거로 남겨두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엄청난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나 여행 중에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방문하게 되면 자주 사진을 찍어 자신만의 보관용으로 저장해두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뜻에 의하여 우리의 사생활이 노출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생활이 사라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숨길 수 있었던 사건들이 우리 시대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서 튀어 나와 곤욕을 치르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구설수에 얽히지 않고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의외로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결음을 언제나 지어가는 길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어느 동네 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잘 해봐도 그 동네 사람들에게나 알려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손톱만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 생생하게 보도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뉴스가 큰 뉴스인지 작은 뉴스인지 가릴 겨를도 없이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지구촌 반대편까지 사진과 동영상 등 반한 채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별로 의미 없고 무게도 없는 조그만 뉴스가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이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현재의 삶에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한 번 실수한 행동마저도 그 누군가의 사진과 동영상 기록에 의하여 평생을 따라 다니며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평생의 삶을 진실한 결음으로 걷는 길만이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속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무인속도측정기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고 그런 곳을 요령 있게 피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규정 속도를 지키며 운전한다면 과속단속 경찰이든지 무인속도측정기이든지 모두 염려하지 않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걷는 매 순간의 삶이 신앙인이 걸어야 할 진실한 결음을 걷는다면 우리의 걷는 모습을 그 누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관하더라도 언제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런 결음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살름...
thechoi82@yahoo.com

감정 아닌 '언약' 위에 세워져야 오래 지속

처치리더스.컴, 결혼전문가 데이브 윌리스의 '결혼관계 망치는 9개 요소' 소개

데이브 윌리스(Dave Willis)는 온라인 페이지인 '페이스북 결혼(the Facebook Marriage)'과 'StrongerMarriages.com'의 창립자로, 아내 애슐리와 SNS로나 개인적으로 수천 쌍의 부부와 소통하고 있어서, 듣기 불편한 주장을 펼칠 준비가 돼있다. 바로 오늘날의 결혼은 잘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결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문화가 결혼이라는 이 아름다운 선물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점을 잃어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가정은 공

고한 토대 없이 성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훌륭한 결혼은 운이나 우연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시간, 배려, 용서, 애정, 기도, 상호존중, 굳은 서약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실패하고 있는 9가지 주요 요소를 무작위로 살펴본다. 이 9가지 영역에서 관점과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면, 오늘날의 결혼은 바로 나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Nine Reasons Why Modern Marriage isn't Working)고 윌리스는 설명한다.

1. 약혼한 남녀가 훌륭한 '결혼식'에는 시간과 돈은 엄청나게 쓰지만 훌륭한 '결혼생활'을 준비하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장 행복한 결혼은 두 사람 모두 꾸준히 힘써 상대의 필요를 본 인보다 우선시하는 데 있다.

결혼식에는 준비할 게 많다. 드레스, 촬영, 음식, 책자, 참석 명단 등이 계속된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필자도 훌륭한 결혼식을 정말 좋아한다. 그러나 결혼식이 정말 멋진 하지만 결혼식이 결



반이나 토대가 되지는 않았다. 결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에 토대를 둘 수 없다. 대신에,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서약에 세워야 한다.

오늘날은 감정을 찬양하고 감정이 변하면 결혼생활을 그만두지만, 가장 굳건한 부부는 서로를 좋아하려고 분투하는 때조차도 서로의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6. 결혼생활은 50대 50의 동반자 관계다.

"건강한 결혼생활은 남편과 아내사이에 시간, 배려, 용서, 애정, 기도, 상호존중 굳은 서약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혼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꿈같은 결혼식이 바로 악몽으로 변하는 남녀를 너무나 많이 보아 왔다. 결혼식은 딱 하루만 지나면 되지만 결혼생활은 평생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치를 파티이상의 계획을 하고 있어야 한다.

군건한 결혼을 준비하도록 돕는 몇 가지 중요한 자원은 '약혼한 남녀를 위한 심비스 보고(the SYMBIS assessment for engaged couples)'에서 얻을 수 있다.

2.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말하기보다는 휴대전화로 문자한다.

필자는 과학기술의 열렬한 팬이고 다른 사람처럼 아이폰에 중독돼 있지만 의도적으로 경계를 짓지 않는다면 이 작은 고성능 컴퓨터가 사람을 위협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특히 결혼생활에 있어서 얼굴을 맞대며 인간적인 소통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떤 과학기술도 쓰지 않고 함께 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여러 부부가 근처에 불빛이 빛나는 화면이 없으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 버렸다. 다양한 대화와 친밀한 관계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휴대전화도 좋지만 기

계 없는 대화가 훨씬 더 좋다.

3. 결혼생활의 조언을 시간을 초월한 진실 대신에 인기 있는 유형에서 찾는다.

필자는 크리스천이어서 의미 있는 인생과 멋진 결혼생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고 믿는다. 놀랄 수도 있지만 성경이 실제로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많이 고무됐다. 결혼에 대한 조언을 시간을 초월한 근본에서 찾지 않고, 할리우드·대중문화·잡지·휴게실 대화의 조언에 모두 맡기게 되면, 결혼은 인생의 폭풍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4. 결혼을 언약이 아닌 계약으로 본다.

결혼하면 국가는 이 결합을 계약서에 지나지 않게 본다. 변호사인 필자의 두 남자형제는 필자에게 '계약서'는 결국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불신 위에 만들어진 당사자 간의 단순문서라고 가르쳤다.

하나님은 결혼을 계약을 뛰어넘는 존재, 언약으로 창조하셨다. 언약 안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익에 있지 않고 타인의 유익에 있다. 언약은 이타적이고, 시간을 추월하고 출구 전략이 전혀 없다. 바로 이것이 결혼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견해를 잃었다.

감정은 변덕스러워서 결혼의 토대로 보면 안 된다. 서약에 뒤야 한다. 서약의 힘이 늘 관계의 힘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5. 서약이 아니라 감정 위에 결혼을 세우고 있다.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감정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변덕스럽기 때문에 나침

결혼이 분명 동반자 관계인 것 맞지만, 오늘날, 모든 것을 위협하게 '내 것' '네 것'으로 나눈다. 결혼을 50대 50로 보게 되면 늘 점수를 따지며 배우자의 노력을 자신과 비교하며 측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의 항상 자신의 점수를 배우자보다 더 후하게 주게 된다. 또한 노력을 줄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자신의 몫보다 더 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이는 결국 둘 사이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결혼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결국 사랑을 바꾸게 된다. 따라서 관계를 50대 50으로 보지 말고, 100대 100으로 보아야 한다. 결혼 생활에 100%를 쏟아야 한다.

이혼은 50대 50이지만, 결혼은 50대 50이 아니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p>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p>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목회상담학 DMin in Counsel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3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홈스쿨링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1면에서 계속)
우리가 선배들처럼 홈스쿨링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할 필요는 없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홈스쿨링이 주변부에서 주류로 이동함에 따라 지방 정부가 그 자유를 제한하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려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가정집에서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발견된 13남매가 1년에 한 번 이상 샤워하지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극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감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현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사건이 제기였다.
그 부부는 체포 당시 자택을

사람학교로 인가 받아 홈스쿨을 운영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홈스쿨링 정책을 제정하는 계기를 초래했던 이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 민주당 호세 메디나 의원은 다른 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주정부 차원의 ‘홈스쿨 규제강화를 위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등록된 홈스쿨들을 매년 엄격하게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주 교육감이 등록된 홈스쿨을 의무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촉구한다.
한마디로 홈스쿨링 가족을 규제하고 정부의 감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홈스쿨링의 ‘개혁’을 지향한다.
메디나 의원은 “각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학교 형태의 선택권을 부여하

야 한다. 학교 없이, 또 학교의 틀에 갇힌 사고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로부터 홈스쿨링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초기 선구자들처럼 홈스쿨링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자유를 지키는 용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만일 애틀랜타, 덴버, 휴스턴, 시애틀의 신문사가 폐쇄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 물론 당사는 신문 소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얼마나 신문을 읽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이 부풀려지기 쉽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발견한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은 인디펜던트지가 온라인으로 중점을 옮기면서 국제적인 도달범위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 종이 신문으로는 도달할 수 없지만, 기사의 링크를 누를 수 있는 거대한 독자 집단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시장 밖에서 증가하는 도달 범위는 미국 대도시권의 일간 신문이 온라인에서만 신문을 발행할 때는, 그들이 지역에서 담당하는 임무를 극단적으로 버리지 않는 한,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
여전히 많은 사람은 엘버커키, 프레즈노, 신시내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 종이 신문 발행을 멈추는 것은 언론사의 비용을 절감한다. 신문사 지출 구조의 큰 부분은 건물 크기의 인쇄기, 캐나다산 나무, 대형 통의 잉크에 묶여있다.
하지만 신문 발행을 멈추는 것이 신문사의 실리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독자들은 이에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언론의 도달 범위와 영향력의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이신문 독자가 더 나은 뉴스 소비자

(1면에서 계속)
신문 발행을 중지하던 시점, 인디펜던트지는 5천8백만 명의 디지털 월 사용자와 비교하면 오직 4만에 불과한 신문 유료 발행 부수를 가지고 있었다.
5천8백만은 4만보다는 훨씬 커 보인다! 하지만 서면과 플레처는 이 적은 수의 신문 구독자가 인디펜던트지 콘텐츠에 독자들이 소비하는 시간의 8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독자들이 인디펜던트지 콘텐츠에 소비하는 시간은 오직 19%에 불과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는 평균적으로 인디펜던트지 신문 구독자 한 명이 월별 웹사이트나 앱 이용자 1명이 만들어내는 콘텐츠 소비의 6,100배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월별 디지털 이용자는 사람들의 행동을 측정하고 신문 발행은 부수를 고려하기에 완벽한 비교는 아니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하다. 종이 신문 독자는 디지털 이용자보다 더 나은 뉴스 소비자이다.
그러나 인디펜던트지의 신문 구독자들이 소비하던 모든 시간이 신문 발행이 중지되며 사라졌다. 그 시간은 인디펜던트지의 온라인 홈페이지로 가지 않았다. 그 수효는 다른 뉴스 사이트, 몇 분 동안의 페이스북 스크롤링, 넷플릭스, 포트나이트, 오후의 낮잠과 같은 누군가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움직였다.
서면과 플레처는 신문 발행

중지 시점의 12개월 전과 후의 기간, 독자들이 인디펜던트지에 소비하는 전체 시간이 56억 분에서 11억분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문 독자 중 반은 “거의 매일” 신문을 읽는다고 답했다. 온라인 방문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기사를 읽는다.
신문 독자들이 그들이 읽는



일간 신문에 평균적으로 매일 37-50분의 시간을 소비하는데 반해, 온라인 인디펜던트지 독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6분을 쓴다.
2009년, 마틴 랑에펠트는 단순 계산을 통해 신문 콘텐츠의 오직 3%만이 온라인에서 소비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동종 산업에서 보여주는 트렌드는 뚜렷하지만 폼스코어, 오픈슈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는 거대한 디지털 숫자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이동을 숨기고 있다.
마틴의 분석 이후 10년 동안, 적어도 인디펜던트지에 대해서

는 3%라는 디지털 소비수치는 19%로 바뀌었다. 하지만 소비 구조의 역학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인쇄매체 신문은 오직 적은 수의 경쟁자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온라인에서 언론사는 무한의 경쟁자를 가지고 있다.
서면은 이렇게 말한다. “온라인에서만 뉴스를 제공하며, 인디펜던트지는 그동안 받고 있던 독자들의 관심을 잃었습니

다. 기사는 이제 읽기보다 단지 쳐다보는 대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디펜던트지는 지속가능성을 얻었지만, 중요성을 잃었죠.”
온라인에서만 뉴스를 공급하기로 전환한 미국 일간지들은 왜 인디펜던트지의 사례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인디펜던트지는 영국에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13개의 신문 중 하나다. 특정한 신문에 애착을 보이는 영국 독자들이 존재하지만, 인디펜던트지 독자들이 가디언이나 타임스, 텔레그래프의 신문 독자가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문화 칼럼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목양 헬프 대표

이 가을의 기도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하다. 산길 숲속길이 아니라도 상큼한 공기의 체감은 몸도 마음도 맑게 한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은 작년보다 다를 것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같지 않다.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내 가슴 속에 가을이 주는 매력과, 충격, 흐르는 노래는 이미 사라져 버린 상태이다. 산을 오르며 숨 가쁘게 느끼는 생명의 풍도,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케 한 산속의 풍경도 시들하고, 천연색색 오색찬란한 장면도, 허무의 그림자와 무능의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에 감탄도, 노래도, 시도, 살아나지 않는다. 다정히 걷던 옛길의 추억도 별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가을은 또 다시 올 것이 분명하지만, 단 한번밖에 없는 인생길, 눈을 감았다 뜨면 지난 시간이 되어버리고,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 되어버릴 것인데, 나는 오색찬란한 산 중턱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시킨 이 가을의 장관을 보면서도, 감동이 시들어 있다.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시도...

그래서 바다로 향했다. 동해의 험한 파도를 보면서 때려도, 부딪쳐도, 부수어도 부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게 반복되는 창조의 기묘한 섭리를 보면서도, 나는 지금 옆구리를 짓누르는 고통 때문 거기에 전 신경이 머문 채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고통이 이 모든 것을 송두리 채 삼켜 버린 것이다.

속스로 돌아온 그날 밤 급히 준비해온 진통제를 입안에 털어 넣고는 한 없이 한 없이 울었다. 나약한 자신을 보면서 회개했다. 내 육체의 고통이 감격을 거두어 갔고, 내 육체의 현실이 감사를 송두리 채 지워버렸고, 내 육체의 진한 아픔이 노래를 잃어 버렸던 시간들을 한 없이 한 없이 울며 회개했다. 읊도 생각하고 바울도 생각했다.

물론 십자가 예수님 앞에 양심의 가책과 무력함이 더욱더 그러했다. 그 아름답고 요모한 창조의 운행 속에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나 버린... 고통의 찌름은 생각에 짓눌린 채... 놓쳐버린 어제의 감격을 후회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 모든 것이 살아났다. 또 다른 새 힘이 주어졌다.

가을에 시를 더하면 더욱 가을 향기에 생동감이 넘치고, 가을에 산행을 더하면 눈과 귀 말고도 코까지 향취에 취하며, 가을에 고향 친구를 만나면 다양한 옛 추억이 살아난다. 과거를 죽여 버리는 내 육체의 고통은 인생을 더욱더 쓸쓸하게 하고 가을 아닌 겨울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행히 다행히 무엇보다 감사와 기도를 더 할 때 가을은 진짜 가을로 다가와 보여지고 느껴졌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힘이다. 기도하며 감사할 때 변화되는 생각이다. 그래서 노래가 나왔다. 수필을 쓰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속초 수산시장에 들어서자 수산물보다 먼저, 검푸른 포도송이, 빨간 사과, 복숭아, 참외, 자두, 배, 게다가 굴, 무화과 싱싱한 과일들이 향기로 채워졌다. 중앙시장의 닭 강정도 내게는 구미가 당기지 않았다. 고향 시골 생각이 났다. 유난히 푸르고 맑은 물 그릇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닌 청도감, 복숭아, 마나리, 다슬기는 독특한 맛을 느끼는 향도 음식과 과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청도 소싸움은 유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가본들 무너진 폐가와 노인정만 보일뿐 머물러 예기할 친구나 다정히 자라던 벗도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이제 아픈 두 다리 가슴의 통증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사랑하는 그 확신의 살아남고, 내가 혼자 아니고, 함께 하고 유난히 사랑하는 자가 있고, 아프고 괴로워하고 흔들리는 마음조차, 축복의 과정임을 스스로 확신하며 희망을 노래한다. 잘될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 구세주 보혈을 믿는 높은 신앙이 생각으로 바꾸었다. 계속 감사로 바꾸었다. 사랑을 살리려고 했다. 기쁨도 소생되었다. 어제의 감격은 깊이 숨어 있었지만, 지워진 추억과 멈추고 있는 감격들을 하나하나 되살리며 노래한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가을 눈부신 아침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을 가슴에 담으면서 또다시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자연 그대로 안고 감사를 울리고 싶습니다. 오감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노래가 섞여 있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 가을의 기도는 회개와 소생의 가을바람을 되찾은 기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내 눈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을 받아주소서.

kkiwon2002@hanmail.net

2018.10.13-14 SAT-SUNDAY 7PM

은혜한인교회 WPC (Grace Korean Church) 1645 W. Valencia, Fullerton CA 92833

More Info Douglas Kim 목사

714.393.5135 | www.facebook.com/1999HYM
www.hym.cc



강사 더글라스 김 목사
HYM Founder

Since 1999
HYM
HYM청년연합회



제39회

HYM청년연합집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THE MISSION FROM THE LORD JESUS

But none of these things move me, neither count I my life dear unto myself, so that I might finish my course with joy, and the ministry, which I have received of the Lord Jesus, to testify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ACTS 20:19-24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별이 된 상처들...

요즘 연방 대법관 지명 후보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증언으로 미국이 떠들썩합니다. 이 여성은 과거의 사건이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후보자 역시 그녀의 증언으로 자신

과 자신의 가정이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의 입장과 그들이 기억하는 사건의 내용이 참예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이 일로 그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큰 상처를 입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삽니다. 아무리 상처가 없는 사람이라도 작은 상처 흔적 하나는 지니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대와 폭행, 또는 불의의 사고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말실수가 다름으로 마음에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개에 물려 잠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지금도 험악해 보이는 큰 개를 보면 가끔 가슴이 선둑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의술로 치료합니다. 소독하고, 약 바르고,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부러진 뼈를 붙이고, 때로는 수술하기도 합니다. 상처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고통의 크기도 다르고, 치료 방법과 기간도 다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잔소

리, 욕설, 고함, 폭언, 비방, 정죄, 언어폭력, 성폭력 등으로 입은 상처입니다. 이런 종류의 폭력들은 수치감,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등...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합니다. 비수가 되어 피해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들은 진단도 어렵지만, 치유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중증 장애자가 되었고, 미리암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나발은 몸이 굳어지는 병을,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았습니다. 모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처들입니다. 반면에 질투심으로 사로잡혀 다윗을 죽도록 미워한 사울왕, 아버지 다윗에게 거절당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가 된 요셉, 아내와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요...이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더욱 어렵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사시나요?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치료는 의사가 행지만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상처와 보이지 않는 상처 모두를 친히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 이십니다. 그가 '재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움'을 받았습시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또한 상처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 혹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아직 내가 온전히 치유 받지 못했다라 주님은 나의 상처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치유되지 않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을 받았습시다. 요셉도 거둬들인 배신과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고 정호승 시인의 시 한 구절처럼 주님은 상처 입은 나를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발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처(Scar)'들을 '별'(Star)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푸/른/초/장

장성철 목사
(보스톤장로교회)



일본의 건축가 후지모토 소우지는 '적을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라는 철학으로 단순하지만 아늑한 생활공간을 꾸미면서 3층짜리 유리 집을 지었습니다. '하우스 NA'라는 투명한 집은 안이 다 훤히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커튼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사용하게 달아놓은 커튼이 침실에 하루 종일 내려져 있습니다.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투명성을 좋아합니다. 재정도 투명해야 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부정직한 삶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13절).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 또한 죄를 감추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하여 변명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예를 일부만 드러내면서 전부인 척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변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하셨습니다(행5:3-5).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이용합니다. 바울 당시에 반울법주의자들은 은 12:2). 또한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것은 위험한 삶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행동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마23장). 정직하지 못한 삶은 용서받을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누우치고 참회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은 자신의 죄를 가리고 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면 감추수록 자신의 괴로움이 더해지는 것을 알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죄의 자복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말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길 원하십니다.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죄의 자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의 자복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죄를 용서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비로운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된 용서받은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복과 자백은 하나님 뿐 아니라 서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죄를 자복하는 것 뿐 아니라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13절). 진정한 죄의 자복은 회개에 따라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악을 포기함이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기만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 행동과 사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화해와 배상도 의미합니다. 삭개요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죄에 대하여 투명한 사람에게는 영광스런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했습니다(시57:10).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했습니다(69:13).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고 찬양했습니다(시86:15).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노래했습니다(시106:1). 이런 하나님의 인자가 자기

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6-7).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알고 친밀한 사귀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근심 없는, 그리고 마르지 않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히4:16). 또한 영광스런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자비로 체험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죄의 씻음과 성령의 새물결을 하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딤후3:5-6)고 했습니다.

투명의 법칙 (잠언 28장 13절)

과연 투명이란 무엇인가? 안과 밖이 같은 것입니다. 감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이 바로 투명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투명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다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투명한 유리 집에 거하시면서도 전혀 불편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아웨-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도 빛 가운데 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을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엡5:8).

아담과 하와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두려움과 벌거벗음, 수치심, 어둠과 죽음의 순식간에 연속하여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의 길로 손발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다시 어떤 진실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빛 가운데 행하고 진정한 사귀어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요일1:5-10). 투명의 법칙은 우리에게 부정직한 삶의 어리석음과 죄를 드러낼 의무와 영광스런 구원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헤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롬6:1). 성경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인 주재 곧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고 꾸짖었습니다(유4).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즐깁니다. 히브리서에서 인간은 "잠시 죄의 낙을 누리다"고 했습니다(11:25).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각했습니다(창3:6). 그러나 그 선악과 열매를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려고' 하다가 은 인류가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계하시의 나이만 장군이 나뉘어 나뉘게 되어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던 선물을 탐하다가 평생 나뉘어 걸려 살았습시다(왕하5:20-27). 이런 모든 부정직한 삶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도 찾으신다" 때문입니다(전3:15). 예수님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눅

32:3).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드러낼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13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마음의 치유보다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누우치고 참회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라" (시51:6).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복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개인적으로 체험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고 중단되면 우리는 즉시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관계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5:16).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5:23-24). 형제자매와 관계가 바르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잘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일시적인 복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른 관계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영광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광스런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로 찾아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허락함으로 돌이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55:7)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을 풍성하고, 넘치게 용서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오점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는 영광스런 구원의 길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리고 영광스런 구원은 예수님의 임마누엘 자비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심각한 것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둠에서 행한다면 주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자비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

(2면에서 계속) 결혼은 100대 100이 되어야 한다. 결혼은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7. '자녀'의 행복이 건강한 결혼 생활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일은 '행복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성인으로 키우는 것이다. 모든 초점을 자녀의 한시적인 행복에 두면, 결국 아이도 망치고 동시에 결혼도 망치

게 된다. 또한 '빈 동지'와 빈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 자녀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결혼생활하러 하나로 통합된 가정에서 오는 안정이다. 8. 우리는 만들어진 '성관계'와 연애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절대 일시적인 쾌락을 영원한 후회와 바꾸지 말아야 한다. 이 상황이 기본 나쁘게 하겠지만, 귀 기울여

여 들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가장 결혼을 망치는 요인 중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찾지 않고 포로노, 예로소설, 디테일한 애정소설 같은 외부 성적 또는 낭만적인 환상에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필자는 SNS와 '결혼 성관계와 친밀감에 대한 온라인 비디오 과정'에서 '포로노가 왜 파괴적인지' 나누었다. 오늘날의 결혼이 신체적으로 일부일처주의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일부일처주의인 것에

전념한다면, 바로 좋아질 수 있다. 9.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함께 힘쓰는 것보다 이혼을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은 언젠가는 하나의 이야기 거리에 지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왜 이혼하게 됐는지 혹은 더 굳은 결혼 생활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어떻게 힘썼는지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어떤 이야기가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은 이혼이 결혼생활이 마주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풀이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이혼은 대개 문제를 풀기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낸다. 어려움이 닦혔을 때 바로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는 문제를 통해 어려움을 풀어야 한다. 변명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서로 맞서 싸우지 말고 서로를 위해 싸워야 한다.

결혼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은 언젠가는 하나의 이야기 거리에 지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왜 이혼하게 됐는지 혹은 더 굳은 결혼 생활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어떻게 힘썼는지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어떤 이야기가 실제로 이뤄질

풍수지리사상과 같이 땅에 의해 인생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인생이 어떻게 땅에 매일 수 있겠는가? 사람이 좋으면, 땅이 좋아진다.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왕들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땅은 부흥하고 번성하였다. 좋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배 중심, 교회를 중심한 삶이다. 그러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결과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생의 축복-교회 앞으로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

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오가던 중에 믿음이 쑥 들어오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집이라고 해도 다리 밑에 가마니 깔아 놓은 게 전부였을 텐데, 거기 누웠는데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다. 자신은 이렇게 거지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식 놈들도 나처럼 강퍽 들고 거지 노릇 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거지가 뭘 했느냐?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었기에,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이 생각나

배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인 승동교회 같은 경우에도 백정마을에 복음이 들어와 세워진 교회이다. 백정 박승춘이 세례 받고 장로가 되면서, 양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분열과 화합을 거듭하며 성장하던 초창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다. 한때는 양반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예배당 뒤쪽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 백정들을 앉히려려고도 하였는데, 당시 무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며 양반쪽의 타협안들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 거지 백정 상놈 양반의 차

바치고 나면 나중에 뭘 먹고 살겠느냐? 그래서 선교사님은 백사경을 데려다가 교회 사찰집사를 시키게 된다. 그런데 그 사찰집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총명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시켜서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해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 된 백낙준 박사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며 섬기고 살았더니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예배

- 믿음의 가문, 축복의 삶, 복된 세상

다.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조상제사 문제로 쉽게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좀 달라고 하니, 좋은 땅을 내어 주지 않았다. 겨우 사정대기 얻은 땅들을 보니, 산꼭대기나 혹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을 내어 준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100년 넘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높은 지대 위에 산성처럼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들은, 정말 성경말씀처럼 온 세상을 밝히는 산성위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그런 시절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상놈, 거지, 백정 등의 천민들이었다. 그 중에서 거지에게는 남는 게 시간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는가? 출근할 일도 없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중에 아주 믿음 좋은 거지가

서 교회로 기도하러 간 것이다. 가서 기도하다 보니 또 말씀이 생각난 것이다. 간절한 소원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난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고 들은 선교사님이 놀라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거지가 그 마음에 근심을 털어놓았는데,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여차피 교회를 불려줘야 하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는 그 자녀들 가운데 뽕뽕해 보이는 아이들을 안식년 같은 때에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다는 것이다. 마치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의 아이들을 돕는 것처럼 데려와서 공부에 도움을 준 것이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한국으로 데려와서 자신들이 세운 명문 미션스쿨의 교수들이 되도록 도왔다는 이야기이다.

차별없는 은혜-교회와 예

별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서 교회의 예배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증거 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냥 거지가 아니라 거룩한 거지가 되고, 거룩한 상놈이 되고, 거룩한 백정이 되는 것이다. 예배가 인생의 회복이며, 교회는 축복의 저장고임을 분명하게 증거 하는 내용들이었다.

평안도 정주 땅에 백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일하러 가는데 보니까 선교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흙으로 벽돌을 구워가지고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저렇게 짓다가는 금방이라도 비가 오면 다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짓도록 현금으로 바쳤다.

선교사님이 볼 때 감사하면 서도 걱정이 되었다. 땅을 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날 복 받기 위해 교회를 섬기는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기복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자체를 말함이다. 기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 인간 스스로가 만든 대상에 대해 손이 발이 되도록 베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대했던 복이 없다면 싫으면 언제든지 그 섬김의 대상을 자기 기준에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상에 대해 섬기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만복의 근원이시다. 결코 기복신앙의 대상이 되실 분이 아니다. 모든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그 아들의 피 값으로 세운 그 교회 앞에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다. (9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사탄적인 악한 사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김 권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종말을 맞이하여 기독교의 해악이요 상극과 같은 악한 황충이 같은 사상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오늘은 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은표 목사가 출간한 개혁신앙의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글을 보면 “공산주의는 그 사상이 무신론이며 모든 종교는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대중을 탄압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도구”라고 했고 “종교는 공산주의 체제 하의 인민을 고통, 비참, 신바로 이끌어 죽음을 안겨주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가장 위험하고 지극히 지극한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소원시키는 일종의 정신병의 징조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자신이 타고난 탁월한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p. 19).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마귀는 ‘살인자’라고 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공산혁명을 방지하여

공산주의는 사탄적 악한 사상...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어

모택동이 죽인 사람은 6,400만명이고 스탈린이 죽인 사람은 4,500만명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인 사람은 700만명이 넘고 김정은 체제에서도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공산혁명을 핑계로 많은 사람들의 토지와 재산을 빼앗고 도적질했습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요 성공적인 목회자였던 정암 김홍도 목사님이 쓰신 “불기둥”이라는 설교집을 보면 “공산주의는 재산을 함께 나눠 갖자”는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워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고 노동자, 농민이 잘사는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즉, 무산 계급 사회를 만들자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사상을 내세워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골고루 잘 사는 세상, 유토피아(Utopia)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며 선동하기를 “전 세계 노동자 농민들이여, 무산대중이 잘사는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려면 자본가의 재산과 공장을 다 빼앗아야 한다”라고 했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한다”고 하면서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 방화, 살인 폭력 등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며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고 도둑질했습니다.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으나 결국은 골고루 못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산국가는 다 거지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르크스나 레닌이 평등하게 잘 살자고 하는 것은 그 발상부터 도둑질하는 사상이며 강도의 사상, 마귀의 사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 전교조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50대 대기업을 깨부수고 50개 교회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좌파 사상을 가진 전교조가 내세우는 무상급식도 남의 것을 빼앗아 골고루 나눠주는 도둑놈의 사상입니다. 결국 좌파 지도자들의 인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금 없는 복지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좌파의 포퓰리즘(Populism)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위장한 사회주의이며 결과적으로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통제에 두어야 한다”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p.308-313).

과거 한국 이명박정권 때 한 공익방송의 거짓된 보도로 쇠고기 광우병 파동을 일으켜 100일 가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촛불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지만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다 마귀의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반미를 외치고 미군철수를 외치는 좌익사상들이 그 주동이 되어 나리를 어지럽힌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은 중도실용주의를 외치며 자신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남북이 대치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좌나 우나 한 편에 서야지 중립은 없습니다. 한국의 좌파들은 이념시대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이념 없는 정치는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만 한국이 북한에 의해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죽게 되는 자들이 목사, 장로 및 기독교신자들일 것입니다. 기독교신자들은 모두 다 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학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	--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앙아프리카의 피그미(Pygmies)



15만명의 이상의 미전도 피그미족은 중앙아프리카의 열대 우림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카메룬에서부터 콩고에 가로질러 자이레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지역에서 거주한다. 아케부족 등 이 종족들 중 적어도 하나는 서부 아프리카의 토고의 일부 지역에도 자리 잡고 있다.

피그미족은 키가 아주 작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성인들은 대개 키가 3-4피트(90-120cm)에 불과하다. 사실, "피그미"라는 그들의 이름은 "1척의 키"라는 뜻의 그리스 단어 "파이메"(pyme)에서 유래한다.

피그미족은 자이레에 위치한 콩고 분지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원주민이다. 또 보고에 따르면 4천

여년 동안 이투리(Ituri) 밀림에서 피그미족들이 살아왔다고 한다. 오늘날 그 곳에 살고 있는 피그미족은 자신들을 "므부티"(Mbuti)라고 부르며, 므부티족에는 예페, 아카, 바야카 피그미족이 포함된다. 피그미족은 이웃의 흑인들보다 피부가 하얗다. 그들은 상냥하고 평화로운 사람들로써, 쉽게 발견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밀림에서 몸을 잘 숨기는 능력이 있다.

삶의 모습

피그미족은 밀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들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사냥과 채집에 의존한다. 그들 중 일부는 밀림 한가운데에서 농사를 짓거나 밭을 일구지만, 그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사냥과 채집이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고 있더라도 사냥과 채집을 위해 포기하기도 한다.

오늘날, 피그미족은 더 이상 밀

림지역에서 그들만 살지는 않는다. 많은 흑인 농부 집단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마을을 세웠다.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게 됐으며, 함께 평화롭게 살아간다. 이 때문에, 피그미족은 대개 그들과 관련 있는 흑인 부족의 방언 즉 반투, 니그로, 수단어를 사용한다.

피그미족 남자는 사슴, 돼지, 하마, 코끼리 등을 사냥한다. 일부 피그미 부족은 그물을 이용하여 사냥하고, 다른 일부는 창이나 활을 사용한다. 대개 그들이 기르는 유일한 가축은 사냥개뿐이다. 육류와 벌꿀 등 밀림에서 나는 자원을 농부에게 팔아서 옥수수, 소금, 옷, 철제 도구 등을 산다. 남자들이 사냥하고 있는 동안, 여자들은 야생 과일, 뿌리, 곤충, 도마뱀, 조개 등을 채집하느라 분주하며, 고기잡이도 한다.

피그미족은 20명에서 100명이 채 안 되는 규모로 방랑무리를 지어 산다. 이 무리들은 전 부족이 집단소유하고 있는 사냥지역을 떠돌아다닌다.

피그미의 마을은 영구적이지만, 남자들이 사냥하는 동안에는 캠프를 만들어 이용한다. 마을은 집들

과 요리 장소로 이뤄져 있다. 그곳에는 바나나나 커피 재배지를 제외하고는 나무와 잡초가 없다.

한편, 캠프를 치는 곳은 밀림 내에 위치해있어서, 햇볕을 항상 쬐지 못한다. 아마도 이 때문에 그들이 비교적 하얀 피부를 가지게 된 것 같다. 전형적인 캠프 장소는 자그마하고 약 20명에서 35명 정도 머무를 수 있다. 둥근 오두막을 지어서 원형으로 배치한다. 이 오두막은 대개 땅에다 구부릴 수 있는 대를 세워서 원형으로 짓는다. 대를 구부려서 꼭대기에서 함께 모은 다음 묶어서 앞으로 댄다. 즉, 일과 나무껍질을 사용하여 대를 댄다.

피그미족은 일반적으로 한 아내만을 갖게 되지만, 일부다처제가 특히 바카족 가운데 존재한다. 피그미족 남자는 여자의 제안에 "신부값"으로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아내를 얻는다. 다른 피그미 부족과 마찬가지로, 므부티족도 또한 아내를 얻는 방법으로 "자매 교환"을 한다.

피그미족은 전형적으로 나무껍질을 두들겨서 만든 간단한 허리에 두르는 옷을 입는다. 어떤 부족에서는, 허리에 두르는 이 옷의 뒤

에 달린 줄이 거의 땅에까지 내려오며, 꼬리 모양 같은 인상을 준다. 그들은 춤출 때 이것이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이 기다란 줄을 좋아한다.

이 밀림 거주자들의 음악은 이웃 흑인의 음악과는 상당히 다르다. 피그미족은 그다지 많은 악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타악기와 호각, 두 줄로 된 활 모양의 기타가 있다. 그들의 노래는 오늘날로 부르며, 대부분 가사보다는 소리만이 있다. 그들은 자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지는 않고 한번에 한 사람씩 노래를 부르거나 오늘날을 한다.

신앙

피그미족은 "토레"(Tore)라는 이름의 신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최고의 존재라고 믿는다. 모든 사람이 밀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은 밀림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들은 위기에 빠졌을 때에 토레신에게 의탁하며, 신의 목소리를 흉내 낸 큰 나팔 소리를 내어 신을 부른다. 토레가 처음 인간을 창조한 후에는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으며,

하늘로 물러나버렸다고 일부 집단은 믿고 있다.

피그미족은 또 "밀림의 영들"이 죽은 자의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다. 특히, 예페족의 믿음에 따르면 피그미족이 죽은 후에는 "리뎀" 또는 "생명"을 의미하는 "보루피"(borupi)가 몸에서 나와 파리가 데려간다고 한다. 즉, 파리가 그들을 토레에게로 데려간다고 믿는 것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국가의 정부는 일부 아프리카인들에게 보건시설과 교육기회를 제공하지만, 피그미족은 그 가운데 포함돼 있지 않다. 훈련받은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의약품 공급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교육시설과 고등학교도 또한 필요하다.

영적으로, 피그미족은 구주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사랑이 풍부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창조주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누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기적의 3분" 하나님 음성에 강진 피한 여객기 기장

인도네시아 여객기 기장이 예정된 비행 스케줄 보다 먼저 비행기를 이륙시키며 강진의 재앙으로부터 140여명의 승객을 구했다. 30초만 늦었어도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기장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라고 고백했다.



일각 퓌파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사의 리코스타 마펠라(Ricosetta Mafella) 기장은 지난달 28일 술라웨시 섬 팔루 공항에서 강진이 발생하기 직전 6231편 여객기를 극적으로 이륙시켰다.

예정된 출발 시각은 당일 오후 5시 55분이었는데 기장이 3분을 단축했다.

마펠라 기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시 상황을 적었다. 그는 "오후 5시55분 출발 예정이었는데 오후 5시52분 문을 닫은 직후부터 속도를 급히 올려 오후 6시2분 이륙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객기가 활주로를 내달리는 동안 기체가 좌우로 크게 흔들렸지만 활주로 표면이 고르지 못한 탓으로 여겼을 뿐 지진이 팔루 공항을 강타한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다. 목적지였던 남(南) 술라웨시 주 마카사르 공항에 착륙한 뒤에야 지진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 규모 7.4-7.7의 강진이 오후 6시2분 팔루 공항을 강타했다. 비행 당시 2000피트(609m) 상공에서 주변 해역에 이상한 모양의 파도가 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인스타그램에 관련 영상을 올렸다.

기장은 어떻게 여객기 출발을 서두를 수 있었을까. 그는 성령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했다고 전했다.

마펠라 기장은 "팔루 공항에 착륙한 직후 일찍 떠나라고 말하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그 목소리에 이끌려 이륙 준비를 서둘렀다. 30초만 늦었어도 공항을 뜨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기독교 전문매체 가리포츠닷컴에 따르면 기장은 지난달 30일 자카르타의 교회에서 사고 당일의 상황을 보다 상세히 간증했다.

그날따라 알 수 없는 불안이 사달린 그는 팔루 공항에 착륙하기 전부터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목소리를 들었다. 실제로 너비 5km, 길이 18km의 좁은 협만 안쪽에 있는 팔루 지역엔 세찬 바람이 불고 있었다.

여객기를 착륙시킨 뒤 그는 최대한 빨리 공항을 떠나기 위해 갖가지 조치를 취했다. 승무원들에게 20분의 휴식만 취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은 조종석을 떠나지도 않았다. 또 관제탑에는 예정된 스케줄을 최대한 당겨 3분 먼저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제탑의 허락이 떨어지고 문이 닫히자마자 마펠라 기장은 항공기의 속도를 올렸다. 부기장이 해야 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출발을 서두른 것이다. 부기장은 기장의 행동에 놀라 소리를 쳤지만 마펠라 기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마펠라 기장은 여객기 이륙 이후 관제탑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강진으로 이미 관제탑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마펠라 기장에게 "바틱 6231편, 33번 활주로로 이륙하십시오"라는 교신을 마지막으로 남긴 스물한 살의 관제사는 팔과 다리, 갈비뼈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도 중 사망했다. 마펠라 기장은 관제사를 추모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마펠라 기장과 관제사를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마펠라 기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동요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면서 "그랬아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49년 된 흑인 '피난처 교회' 마지막 예배드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오늘로 끝나지만 계속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목사의 한 마디에 성도 수백 명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평소 10명도 출석하지 않던 예배당은 이날 주변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 수백 명이 모였다.



바바라 브렐렌드 목사의 설교가 끝난 뒤 아기를 위한 세례가 이어졌다. 이후 합창단의 찬양으로 예배가 끝났다. 브렐렌드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마지막 성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며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링컨템플유나이티드 교회의 마지막 예배 모습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워싱턴 DC에서 가장 큰 흑인 교회였던 링컨템플유나이티드 교회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링컨템플유나이티드 교회는 149년 전 세워진 흑인 교회다.

링컨템플유나이티드 교회는 149년 전인 1869년 '볼팩스 미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워싱턴 지역 인근 흑인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이후 1865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링컨 미션 공동체'로 이름을 바꿨다. 이들은 주변 신앙공동체와 연합해 교회를 세웠다. 1929년에는 지금의 자리에 붉은 색 벽돌로 된 교회 건물을 완공했다. 교회 건물은 1995년 국립역사박물관에 의해 문화재로 등록됐다.

교회는 1960년대 흑백 분리와 같은 인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항했다. 이 교회 성도였던 메리 처치 테일은 같은 교회 성도인 이다 벨스와 함께 워싱턴DC 내 식당들의 차별 금지 캠페인을 벌였다. 이밖에도 수많은 흑인 운동가들이 탄압을 피해 찾는 '피난처' 역할을 도맡았다.

WP는 링컨템플유나이티드가 문을 닫게 된 이유가 워싱턴DC 내 흑인 사회가 마주한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젊은 백인 인구가 유입되는 동시에 지역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흑인들이 교회 등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WP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교회 인근 지역의 흑인 비중은 65%에서 29%로 급락했다. 이 교회에서 목회했던 벤자민 루이스 목사는 "워싱턴DC는 원래 '초콜릿 도시'라고 불릴 만큼 흑인 인구가 많았지만 백인 청년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초콜릿 도시'가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체에 확산된 탈종교 바람도 성도 수 급감을 부추겼다. 1200명의 성도들을 수용했던 교회는 지난 9월 주일예배에 단 9명의 성도만이 출석했다. 교회 측은 "사역 등을 확장하거나 건설업 업체의 도움을 받아 교회 운영을 계속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운영할 동력이 없다"며 폐쇄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 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60년 동안 교회에 출석했던 케트린 게인스(101)씨는 "나갈 교회가 없어진 건 평생 처음"이라며 "집에 가면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올 노벨평화상 수상 드니 무퀘게 별명은 '닥터 미러클'

올해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콩고민주공화국(DRC) 산부인과 의사 드니 무퀘게(63)는 지난 5

일 동부 도시인 부카부의 판지병원 수술실에서 자신의 수상 소식을 들었다. 옆에 있던 간호사들은 "할렐루야"를 외쳤다. 무퀘게의 별명은 '닥터 미러클'이다.



7일 크리스체너티투데이와 BBC에 따르면 무퀘게 박사는 지난 20년간 판지병원에서 3만여명의 여성을 치료해 온 크리스천 의사였다. 그는 내전 과정에서 잔인한 성폭행이나 신체 훼손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데 힘썼다.

그의 기독교 신앙은 전이적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 무퀘게 박사는 고통받는 여성들의 육체 치료뿐 아니라 그들이 폭력에 대해 스스로 투쟁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알렷다. 그의 모든 치료 과정은 여성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인 NPR이 전했다.

판지병원장이기도 한 무퀘게 박사의 부친은 오순절 교회 목사였다. 어린 시절 환자를 방문하고 기도하기 위해 심방을 나선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스웨덴 오순절 미션'은 그가 의학을 공부하도록 도왔다. 무퀘게는 출산 과정에서 미흡한 의술로 여성들이 고문받고 있음을 발견하고 산부인과과로 전공을 택했다.

부룬디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시절 그는 국제복음주의 의학협회(IFES·한국기독교학생회(IVF)의 국제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IFES 측은 "그 자신의 직업으로 선진국형을 선택할 수도 있었으나 고국으로 돌아가 전쟁과 오랫동안 이어진 성폭력의 희생자들을 돕는 삶을 택했다"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기독교인의 사회참여 모델이 됐다"고 밝혔다.

무퀘게 박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남기며 평등하다는 신념을 위해 일했던 활동가였다. 2013년에는 유럽연합(EU)이 수여하는, '수소련 반체제 해방리허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이름을 딴 '사하로프 인권상'을 수상했다.

무퀘게 박사는 1999년 중앙아프리카오순절교회(CEPAC)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판지병원을 세웠다. 판지병원은 환자 치료 외에 법률 지원, 여성들의 지역 사회 복귀를 위한 도움도 주고 있다. CEPAC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큰 오순절 교단으로 724개 교회와 80만명의 신자가 소속돼 있다. 1000여개의 학교와 160개의 보건소, 판지병원을 포함해 3개의 병원을 세우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열린 세계루터교연합 총회 기조연설에서 그는 "남성 우월주의라는 귀신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르틴 루터의 자손이 된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며 "남성들의 만행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크리스체너티투데이는 "무퀘게 박사는 남성과 여성의 존엄성을 위해 분투함으로써 어두움의 세상 속에 빛이 여전히 비추고 있음을 알게 했다"고 평했다.

한편 또 한명의 노벨평화상은 아라크 야지디족 출신 인권운동가 나디아 무라드에게 돌아갔다.

캐버노 인준안 50:48로 통과...美 대법 무게중심 보수로

고교·대학 시절 성폭행 의혹을 받았던 브렛 캐버노(53)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이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해 미 역사상 114번째 대법관이 됐다.



미 상원이 6일 인준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48표가 나왔다. 두 표차 가결은 1881년 스티븐 리 매튜스 대법관 후보자가 24대 23 한 표차로 인준된 이후 137년 만에 나온 최소 표차가 됐다.

캐버노 대법관은 인준안이 통과된 직후 미 연방대법원에서 선서를 했다. 캐버노는 곧바로 연방대법관 직을 수행한다. CNN방송 등 미 언론들은 이번 상원 인준안 통과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준 표결 직후 "역사적 투표"라고 크게 반겼다.

보수·진보 사이를 오가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의 자리를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이 물려받으면서 미 연방대법원 구성은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진보 성향 4명 구도로 재편됐다. 미 언론들은 "캐버노 인준으로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가 잠깐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원 인준은 소란 속에 진행됐다. 표결은 상원의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공개적으로 외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방청석에서는 찬성 표결이 나올 때마다 고성이 쏟아졌다.

전체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7석,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이 2석이라 공화당 입장에서 2표의 반대표만 나와도 인준이 무산되는 상황이었다. 공화당의 스티브 데인스(몬태나) 의원이 딸 결혼식 참석으로 불참하고,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인준 반대 의사를 밝혔던 리사 머코스키(앨래스카) 의원이 당 지도부의 설득에 기권표를 던졌다. 오히려 민주당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인준안이 통과됐다.

일부 시민들은 표결이 진행됐던 의사당과 연방대법원 주변에서 인준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인준 이후에는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미 언론들은 캐버노 인준 표결이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파장을 분석했다. CNN방송은 기록적인 경제 호황,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이어 이번 인준 통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연승 바람이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인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캐버노 인준에 분개한 여성층과 젊은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4곳·현지교회들 큰 피해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섬을 강타한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한국교회 가 세운 현지 교회 시설이 완파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교회들은 구호센터로 전환해 이재민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대한성경교회(기성·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술라웨시섬 내 인도네시아성경교회 소속 교회인 팔루람바 뿌지안교회와 모루무 엘사다이교회, 마무주교회, 플라플라 켄트메니교회의 건물이 완파되거나 반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교회 중 2곳은 예배당과 사택이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기성 총회는 피해 규모와 현지 상황을 파악키 위해 교단 소속 조병철 선교사를 지난 6일 술라웨시섬 팔루 지역에 급파했다. 조 선교사는 "현지 뿌지안교회 및 사택은 벽이 크게 갈라지고 바닥이 기울어 붕괴 위험이 큰 상태"라며 "현장 상황이 너무 참혹해 희생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전했다. 또 "집을 잃은 현지 교회 성도들은 임시 천막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이곳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먼저 천막 내 성도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한 뒤 산위로 피신한 성도들을 찾아 구호물자와 함께 위로와 격려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진과 쓰나미로 초도화된 술라웨이는 6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인 정도로 세계 최대 무슬림국가 인도네시아에서도 기독교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교육의 기저

보통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교육이란 미성숙한 상태의 아이를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가르치고 기르는 중대한 사명이다. 부모 또는 교사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 나아가서 교회 역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성을 다해 차세대를 양육하여야 한다.

중세교회에는 어떤 교육제도가 있었을까?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서양 문화의 기초가 확립되었는데, 교육의 가치관도 이와 함께 성립되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표로 하는 그리스의 교육은 당대와 후대에 한 개인의 지성과 능력을 함양하도록 자극하였다. 인본주의가 기저를 이루고 있던 교육 사상이었다.

로마 공화정 시대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그리스의 교육 이상을 수용하였지만, 동시에 가정과 국가에서 공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개인을 책임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로마 제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로마 황제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화된 학교 통해 인재를 양성하려 하였다.

우리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 이미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복음은 하나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변형시킬 수 없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유대 사상은 물론, 각 언어와 족속이 지닌 독특한 상황을 반드시 뛰어 넘어야 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그 "내용"은 계시로 받은 성경의 진리였지만, 교육의 "방법"은 이미 서구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존의 그리스 로마의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복음이 그리스 사상과 접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철학 체계를 통해 복음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한 흔적이 있다. 그리스의 사상이 복음의 '내용' 스며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이 즐겨 사용했던 '방법'을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한 것이다.

고대로부터 중세 초기까지 이어지는 시기에 학교 교육의 중심에는 기초 학문이라 할 수 있는 '7가지 자유 학과'가 있었다. 중대교회를 정리하고 중세교회를 새롭게 여는 역할을 담당했던 어거스틴이 "그리스도교 교양"에 잘 정리해 놓았다.

그 중에는 언어와 관련된 3가지 학과 즉 문법학, 수사학, 그리고 변증학이 있었다. 또한 실제와 관련된 4가지 학과 즉, 수학, 기하학, 음악학, 그리고 천문학이 있었다. 향후 중세 시대에 '7가지 자유 학과'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마쳐야 할 교육 과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중세 교회의 교육

로마 제국 내에서 자리를 굳혀가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교육과 세속 교육을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

를 가르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초창기부터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실시한 '문답학교'가 좋은 예이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개인의 신분과 출신에 상관없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종자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 반드시 실시한 교육이

만나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고자한 자들이 사용했던 방법론이 그리스 철학이었으며, 이에 대항하여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사용했던 방법론도 그리스 철학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그리스 철학에 대하여 자연스레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교회 내의 수도사의 위치가 중시되면서, 어려서부터 수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5살부터 15세까지 소년들이 '수도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초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뉘어졌다. 초등반에서는 읽기, 쓰기, 라틴어문법, 음악, 산수, 등 초등교과를 가르쳤다. 고등반에서는 위에 언급한

중세 사회에 대한 언급은 우선 봉건제도의 발달로 시작되어야 한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공백상태에서 영주들은 중앙집권제로 나라를 통치하려던 왕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새롭게 생겨났다. 봉건제도는 토지의 주인인 영주와 절대적인 순종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토지와 보호를 약속받은 신하와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었다.

봉건제도를 배경으로 나타난 '기사 교육'은 칼을 쓰는 무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과 함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덕과 예의를 갖춘 기사들을 배출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태어날 때부터 훈련을 시작하여 21세가 되는 해에 기사로 입문할 때까지 상류 사회에 속한 자로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십자군 전쟁과 함께 중세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유럽 여러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결성한 직업별 조합인 길드가 출현하였다. 봉건 제도의 신분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조합학교'를 운영하면서 특정한 직업을 위한 전문 교육을 제도화 하였다.

10살이 되면 '견습공'의 신분으로,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직종의 달인인 '숙련자'와 함께 먹고 지내면서 기술을 습득한다. 그 후 어느 정도의 기술을 연마한 '자공'이 되면,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장인을 찾아가 더 배우면서 수업을 얻기도 하였다. 특정한 기능에 능숙한 자로서 인정을 받은 '숙련자'는 공정한 심사 후 정식조합원으로 영입되었다.

한 마디로, 중세 대학은 길드의 출현, 즉 조합의 결성에 따른 중세 사회의 변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탄생되었다. 대학을 영어로 University라고 한다. 이는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는 조직이란 의미를 지닌 라틴어 universitas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가르치는 지식인들이 일종의 전문 직업인으로 등장하여 조합을 이룬 것이다.

세속 사회가 발달하면서 교회와 수도원에서 실행되던 교육보다 좀 더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학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대학이 형성되기 전에는 잘 가르치기로 소문이 유망한 선생을 찾아가 그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수준 높은 학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들의 집단 세력이 더욱 노골화되었다. 결국 대학은 교회 권력 및 세속 권력과의 마찰을 가져왔으나, 그 결과 대학은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이들로부터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12세기에 최초의 세워진 대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에 세워진 볼로냐(Bologna) 대학과 살레르노(Salerno) 대학, 프랑스의 파리(Paris) 대학,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Oxford)와 캠브리지(Cambridge) 대학 등이다.

12세기에 대학을 세울 때의 교육 목적은, 법학, 철학, 그리고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교수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중세 시대에 출발한 대학에서 신학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교회가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중세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2)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교회교육 내용은 성경이지만 교육방법은 그리스 로마 방법론 선택 요한복음은 플라톤 철학체계 통해 분명한 복음이해 노력 흔적있어

있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길게는 3년이란 시간을 두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그 뿌리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중세 시대 이후에도 줄곧 이어진 것이다. 현대 교회가 아직도 세례 또는 입교를 앞두고 문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세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을 완비한 뒤에 매우 수준 높은 고등교육기관이 등장하였다. '본산학교' 또는 '감독학교'이다. 각 교구가 세워진 뒤 책임을 맡은 감독의 영향력 아래 세워지고 운영되었던 교회 지도자 성직자 양성 학교이다. 교회를 책임질 자들에게 필요한 과목이 어떤 것이었을까? 성경과 신학 이외에 읽고 쓰는

'7가지 자유 학과'(문법학, 수사학, 변증학, 수학, 기하학, 음악학, 그리고 천문학)를 가르쳤다.

이로서 중세 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그리스의 철학이란 '방법'을 통하여 교육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7가지 자유 학과' 역시 서양 기독교 교육의 교과목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

12세기에 신학전문대학 출현, 교회가 중세사회에 큰 역할 의미 초기 대학설립목적은 법학, 철학, 신학 가르칠 대학교수 양성

다. 교회의 전통에 비해서 지나치게 형식화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동시에 '문답학교'에서 개종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지도자와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고급 문답학교'이다. 항상 거짓 교사가 등장하여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하였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바른 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학교였다.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외에, 철학, 수사학, 천문학, 문학 등 신학을 위한 기초 과목도 가르쳤다. 그 결과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 철학이 자연스럽게

법, 그리스 철학과 문학 등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 철학이란 '방법'을 통해 정리되고 전파된 것이다. 남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과 학적 능력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유럽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통일 시킨 샤를마뉴 대제를 통해 '본산학교'가 교회 교육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후에 '수도원 학교'가 나타났다. 수도원 학교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중세 수도원에 속한 부속 학교였다. 수도원을 찾았던 자들은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영혼 구원과 거룩한 삶을 추

었다.

대학의 탄생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세의 교육이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쳤던 대학은 언제 출현하였을까? 중세 12세기에 생긴 일이다. 중세 교회의 교육을 이하려던 그 배경이 되는 중세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여야 한다. 중세 사회는 교회 안에서만 변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CA (California)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남성순복음교회, 남성영락교회, 남성제일교회, 남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베델인교회,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복음장로교회, 세계소망교회, 요셉선교교회, 엘버인침례교회, 일셔크리스천교회, 은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중은마음교회, 콘너스톤 교회, 토렌스노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성교도 신앙 (64)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 제일교회)

4)자유교회 개념을 가진 사람들

(1) 분리주의자들

자유교회의 역사는 분리주의자들(Separatists)로 알려진 사람들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1580년대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 기간 중이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장로교도들이 1570년경에 청교도들로부터 한 분파를 형성했음을 알고 있다. 그 장로교도들이 한 그룹을 형성한 것은 케임브리지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한 교수의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 서였는데, 그가 바로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이다. 그러나 장로교적 입장을 반대했던 한 새로운 그룹이 탄생하였다. 그들은 국가와 교회 사이에 전혀 아무런 관련도 갖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을 일컬어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했다.

먼저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e)을 추종하여 잉글랜드에서 오랫동안 "독립파(Independents)" 또는 "회중주의자들(Congregationalists)"로서 활동한 사람들을 가리켜 브라운파(Brownists)라고 불렀다. 브라운은 "어느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시행하는 종교개혁에 관한 논문(Treatise of Reformation Without Tarrying For Any)"이란 책을 써서 하나의 씨를 뿌렸지만, 그는 그의 생애의 많은 시간동안 매우 조용하게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로 세월을 보냈을 뿐이었다.

로버트 브라운의 저작은 헨리 바로우(Henry Barrow), 존 그린우드(John Greenwood) 및 존 펜리(John Penry)라는 세 사람에게 의해 크게 선양되었다. 그들은 추격을 받다가 결국 붙잡혀 투옥되어 1593년 사형을 당했다. 그들은 아주 기쁘게 그 죽음을 맞았는데 존 펜리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직전에 그의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는 감동적인 글이 있었다. 그 내용 중에 그는 "국가는 교회와 연관되어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되고, 교회도 국가에 대해 역시 그러하다"고 하였다

그들 세 사람은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했다. 그들은 교회가 정부의 행정을 불러 교회회를 위해서 권징이나 어떤 다른 일을 시행해 달라고 결코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성공회 교도들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국국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물을 뿌리거나 관수하는 식의 세례방식을 믿었다.

(2) 분리주의자들과 크롬웰

1610년 찰스 1세와 의회와의 분쟁으로 발생하게 된 시민전쟁(Civil War)으로 인해 초기에 분리주의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 독립파 교도들과 침례교도들로 나뉘어졌다. 그 두 그룹의 각각은 적은 숫자였으며 그 증가세도 매우 더디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전으로 인해서 크게 이득을

그러나 여기서 크롬웰은 찬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는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항상 성공회 성직자들 거의 대다수가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부도덕하고 자기들의 회중을 전혀 보살피지 않는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설교자가 전혀 없으므로 설교자를 발굴하여 훈련시켜서 그 설교자들을 보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교적인 관용과 예배의 자유에 관한 한 매우 분명한 개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락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브라운과 사람들이나 바로우나 그린우드나 펜리가 하나의 씨앗을 심어놓았다면, 이 씨앗이 진정 참된 열매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올리버 크롬웰의 공화정 시기였다.

(3) 영국 청교도 시기에 속

많은 오점에도 크롬웰은 종교적 관용과 예배 자유 허락 찰스 2세 집권 1662년부터 완전한 분리주의자들로 존재

서 그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믿었던 일부 청교도들에게도 심한 반대를 받았다. 장로교도들도 그 분리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심하게 반대하였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대적하였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예배의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교회가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주장하였다. 처음에 그들은 독립파 또는 회중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17세기 초엽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 침례교 관점들과 같은 관점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아세례를 주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들이에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들의 지도자는 존 스미스(John Smyth)와 토마스 헬위스(Thomas Helwys) 두 사람이었다.

그들은 사실상 영국 땅에 침례교를 설립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1611년 하나의 대단한 "선언문(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이 두 사람 다 물에 잠기는 세례가 아니고 물을 뿌리는 세례를 믿었는데, 그들은 서로 물을 뿌려 세례를 주었다. 흥미롭게도 1610년부터 1640년 사이의 침례교도들은 전혀 침수하는 세례방식을 취

었었고, 또한 크롬웰의 공화정 기간 동안에도 크게 도움을 얻었다. 그들은 매우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자기들의 논리를 고집하였다.

크롬웰은 이제까지 살았던 잉글랜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독립파 교도였으며 매우 확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못했다. 물론 그의 입장은 불기뻐한 상황이었다. 당시 왕이 참수를 당한 상황이었다. 그 상황은 잉글랜드 국교회, 그 감독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폐지된 것이었다.

크롬웰은 대호민관(Lord Protector)의 자리에 앉아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는 교회의 일들을 주장하였다. 국가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는 설교자들을 점명하기 위하여 "시험관들(Triers)"을 임명하였고 설교자도 지명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엘리자베스와 스튜어트(Stuarts) 왕조가 지지했던 바로 그 체계를 계속 도입했던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가교회를 믿고 있었다.

임 당한 장로교인들

찰스 2세가 1660년에 복원되었을 때, 그 일은 장로교회사에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장로교도들이 그 왕정복고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찰스 2세는 그 아버지와 같이 거짓말쟁이었다. 그는 장로교도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약속들을 번복했다. 사실 장로교도들이 그 사람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장로교도들의 생각에는 때가 되면 순차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1662년에 찰스 2세와 그의 신복들은 드디어 속셈을 드러냈고 2000명의 사람들을 그 영국국교회의 관할로부터 추방해 버렸다. 그런 후에야 비국교도들(Nonconformists) 곧 청교도들로 불리었던 사람들은 왕의 속셈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1662년부터 회중주의자들이나 독립파 교도들과 침례교들이 진정한 분리주의자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완전한 분리에 관한 그들의 모든 개념들이 분명해졌고 현재까지 그 입장이 계속 견지되어 왔던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우상 숭배자 아합의 비참한 말로

너무도 멀리 간 아합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이사벨 아비나라 시돈의 과부에게 산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엘리야를 돌봐 주도록 속어 지내도록 두시다 삼년 후에 스스로 나가 아합을 만나 비가 오게 하기위해 바알 선지자들과 경합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

여호와와 단을 쌓고 4통의 물을 번제물로 붓고 도랑에 그득 하도록 붓고 백성들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불이 내려와 사르니 이에 바알 선지자들을 도륙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며 사환에게 구름이 있는가 7번을 보게 한 후 아합이 마차타고 내려가 도록 먼저 보내니 큰 비가 내려 여호와와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허리를 동이고 이스트엘 입구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보이는 환경에 오하러 눈 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른 기막힌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막히게 백성에게 알리는 일을 시원스레 해낸다.

그러나 이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 드는 이세벨을 피해 광야 길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니 먹을 것을 주시고 아무만지고 괴로운 싸움을 홀로 싸우느라 지치고 늙어진 엘리야를 호렘산에서 극진히 돌봐 주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철질을 두셨다고 그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간 후 세미한 소리로 저를 불러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며 할 일을 주신다.

기름 부어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야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계하게 된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나 벤하닷을 죽이지 않고 평화조와 맺고 놓아주고, 조상의 유업인 나봇의 포도원을 왕권으로도 빼앗지 못해 고민하는 아합을 이세벨이 나서서 나봇에게 비유를 시켜 누명을 씌워 죽이는 하나님의 징해주시 국민들의 땅들을 빼앗는 등 하나님을 담대하게 업수이 여가다 엘리야와 또 부딪친다.

집안의 진멸과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 성 결에서 먹을 것을 예언하니 이를 듣고 아합이 금식하며 배우로 몸을 동이고 겸비하니 그 재앙의 시기를 아들 세대로 미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 못되게 했다라도 회개하는 흉내만 내어도 당장 목을 치시지는 않으시고... 계속 임시변통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 게 마음 주는 그런 자 되길 속는 줄 뻔히 알면서도 또 길을 터 주신다. 이에 삼년이나 전쟁 없이 지나간다.

결국 남방 영 여호사밋과 아합이 연합하여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하다 자기들 간에 수를 쓴다고 옷을 바꿔 입고 싸웠는데 우연히 쓴 살에 맞아 전쟁이 맹렬한 바람에 피를 병거 바닥에 다 쏟고 음급조치도 못 받아 보고 처참히 죽는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 시대에 어떤 문화권에 살았더라도 가슴에 품은 눈길이 땅에 속한 영화나 욕망 충족에 가 있으면 인간미가 풍기는 신실하고 아름답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중심을 꼭 붙잡고 있지 않다면 우상 숭배자들이 사회의 주요한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의 다스림을 받은 이들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새삼스레 위경자나 작고 큰 무리들의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아이라함을 깊이 절감합니다.

그래서 아합 같은 악한 왕도 외유내수려 엘리야나 미가야 같은 신실한 종들을 도우자로 불러 주시도 달면 삼키고 설퍼 뱉는, 도무지 어려움을 줘도 은혜를 베풀어 징계의 시기를 늦춰주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벌레 같은 존재이니... 결국은 탐욕우상에 먹혀 다가오는 문제의 쓰나미에 치여 제 명에도 못 죽고 비참히 온 가족이 죽네요. 삶은 아합의 길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최상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구원해 자녀 삼으신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인생을 책임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살만해도 결눈을 팔고 자기 배만을 생각하고 배반한 일삼는 인생을 달래서 스스로 돌이켜 주님께 자신을 드리도록 헌없이 기다리시는 기다림에 마음이 울컥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어 매를 쳐서라도 사람 만드신니 애뜻이 사랑해주시는 그 깊은 마음에 그저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립니다.

멀리 멀리 돌고 돌아 그래도 주님만 곳을 찾지 못해 염치없이 돌아와도 그저 꼭 품고 안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제게 맡기신 주님의 양 무리들에게 부어주시 말씀의 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리이다.

heenlee55@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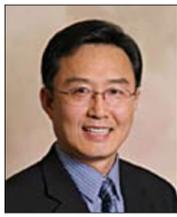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크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후 8:45 금요기도회: 오전 10:00 (화-토) Tel: (718) 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b.org	뉴욕사백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 733-7387 45-16 162 St.,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 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 (Fax 겸용),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cpcny.org Tel: (516) 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신)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 746-7577, (718) 9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it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 342-9194, Fax: (201) 3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www.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1:00 창간년 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0: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창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교회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성경기도: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 Tel: (718) 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Fax: (718) 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 672-1150 Fax: (718) 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 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3140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호로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월-토) Tel & Fax: (562) 556-78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5:30(화-토) 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5:30(화-토) 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 947-5252, Fax: (808) 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분부 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멕시코 번식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부 새벽기도회 생략) Tel: (52) 333-3507-4111 E-mail: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놀림으로부터의 자유함



여승훈 목사

당신은 자신의 어퍼함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해본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기뻐했던 기억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그로 인한 무거운 마음의 놀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자신

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마음의 놀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는 판단에 대한 마음의 무거운 놀림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는 과연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대답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신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성경 어디

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는 부분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 하신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스바냐3:17).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노래까지 부르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기쁨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 스스로에게 기뻐하실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

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게 하시므로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했던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실 때마다 주체하지 못할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농부가 농사철을 지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한 이후에 수확의 계절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보고 기뻐한다. 농사철에 수고하고 고생한 것은 열매 앞에서 다 잊혀진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는 희생을 치르시고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의 열매로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마음의 무거운 놀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일 때문에 당신을 보고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인식하며 함께 기뻐하므로 마음의 무거운 놀림으로부터 자유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한다. 그 진리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므로 마음의 무거운 놀림으로부터 한 단계 레벨을 올려보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쉼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50개 부스에서 현장선교사 만나다

KWMO 출범식 통해 선교박람회 본격화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리는 제 1회 선교박람회를 위한 최종 준비모임이 지난 8일 오전 10시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에서 열렸다.



오는 11월5일부터 7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제1회 선교박람회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김정환 선교사는 "이번 대회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선교대회가 되기를 소원한다"며 선교대회에 대한 바람을 밝히며 선교대회 일정 등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 선교사는 "월요일과 화요일은 오전에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에 대한 선교포럼과 간증의 시간으로 진행되며 포럼은 순서 당 20분의 분량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후와 저녁시간에는 야외에 설치된 부스에서 선교박람회로 준비된다. 부스는 총 50개이며 참석할 모든 이들이 50개 부스를 모두 방문해 선교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또 한 수요일 오전에는 KWMO (세계선교교회운동) 창립예배를 갖고 사역을 본격화 하게된다.

김정환 선교사는 " 그동안 선교대회는 선교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선교에도

움도 많이 제공됐다. 하지만 강의 중심이어서 뭔가 부족함을 준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교박람회는 일반성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될 것이며 설치된 부스를 통해 현장 선교사들과의 만남도 이뤄져 성도들과 선교사가 소통하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은퇴 이후를 보람 있게 보내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가 많았으면 한다. 또한 마음은 있었지만 참여가 부담이 되었던 작은 교회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선교박람회를 통해 소형교회들이 심시일 반으로 연합해 선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교박람회의 목적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대회를 통해 중소형 교회들의 선교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내년 대회에는 좀 더 본격화 시켜 5-10명이 그룹을 만들어 공동체를 이루고 선교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지난 선교대회는 와서 듣는 대회였지만 이젠 찾아가는 대회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힘을 얻고 선교에만 참여가 부담이 되었던 작은 교회들이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클레어몬트이종오부총장 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장학기금조성, 차세대지도자 양성 등 헌신하겠다"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이종오 부총장 취임감사예배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이하 CST: 총장 제프리 관 박사)은 지난 7일 오후 4시, 이종오 대외협력 부총장 취임감사예배를 LA연합 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에서 거행했다.

예배는 인도와 찬양 김남중 목사, 이종오 박사 소개와 여는 기도 이창민 목사, 특송 CST 한인재학생, 말씀봉독(출18:9-27) 김정희 전도사가 각각 순서를 맡았다.

관 총장은 '모세의 리더십 교훈'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급변하는 현

존의 시대와 환경 속에서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바른 리더십은 세상이 아닌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 모세와 장인의 리더십의 교훈 속에서 성경적 리더십은 사람중심이 아닌 사역중심이다. 권한의 분배와 위임 속에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협력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관 총장은 설교를 마치고 이종오 부총장에 대한 서약 문답과 취임대 증정을 했으며, 김용민 목사를 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종오 부총장은 취임사에서

"CST 명문신학대학원의 중차대한 부총장 책무를 맡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장학기금 조성, 차세대 지도자 양성 등, 책임수행을 위해 동문, 학교와 후원자들과 함께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순서로는 △Mr. Byung Joon Lee & Mrs. Bok Hyung Lee △Rev. John Yoon △Mrs. Sung Sook Park 등 대학 장학기금 조성 기여자와 가족들에 대한 감사패 증정 순서가 있었다.

축사에 나선 이병중 장로는 "항상 때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했으며, 김낙인 목사(캘리포니아퍼시픽연회 코커스회장)는 "교회와 신학교는 물론 세상 사람들의 갈급한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사를 했다.

현금 특송은 테너 피터전, 현금 기도는 오경환 목사, 광고는 김남중 목사가 담당했다. 이어 Grant J. Hagiya 비숍의 파송과 축도로 마쳤다.

이종오 부총장은 연세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삼성전자 해외본부 근무, 엘스전자 대표, 명지대 경영학과 부교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CAL State 방문교수,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재단이사를 역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주찬양선교회가 주최한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들을 돕기 위한 제4회 찬양선교음악회에서 전출연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 돕기

제 4회 찬양선교음악회, 미주찬양선교회 주최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들을 돕기 위한 제 4회 찬양선교음악회

음악회가 미주찬양선교회(대표 이재근 목사) 주최로 7일 오후 6시30분

(박준호 기자)

홀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소회 아나운서(미주복음방송) 사회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LA남성선교장단(지휘 원영진), LA목사중장단(지휘 서문욱 목사), 소노로스심어즈(지휘 이종현), 레위남성성가단(지휘 광명규), 오렌지미선교아카데미(지휘 장진영) 등 남가주에서 활동 중인 남성합창단들이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소프라노 최정원이 특별출연해 찬양선교음악회를 빛내주었다.

음악회는 출연자 전원이 연합합창으로 '이 믿은 더욱 굳세라'를 불렀으며 청중들과 함께 실용품을 한 후 이재근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시온복음선교교회 창립 32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흠리스 훼손된 마음 회복되길"

시온복음선교교회 설립32주년 감사예배

시온복음선교교회(대표 글로리아김 선교사) 설립 32주년 기념 감

사예배가 6일 오후 3시 열렸다. 글로리아김 선교사는 "32년을 지

켜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32년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했는데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흠리스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훼손된 마음을 보게 된다. 그 마음이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목사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글로리아김 선교사가 기도했으며 정대철 목사가 누가복음 10장 25-37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태갑 형제가 특송했으며 글로리아김 선교사가 특별선교 보고를 했다.

이날 예배는 정대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여러 가지 말과 평이 있지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흠리스 교회에 지붕에 비가 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교회가 허물어진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뒤로 누워 등으로 그 흠을 받아냈다고 말한다. 그것이 지금의 명성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정치적 독재가 아닌 단순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공로만 해도 분명히 감사의 대상이 된다. 80가까운 노모는 늘 기도하면서 말씀한다.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데,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딸을 감옥에서 내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만큼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박대통령이 행한 그 새마음 운동의 노랫말의 첫 시작이 무엇인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음을 가꾸세'이다. 우리 민족이 그 새벽종 소리 듣고 일어났는데, 그 새벽종 소리가 무엇인가?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종소리였다. 우리 민족이 교회 새벽기도 종소리 듣고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룬 것이다. 노래에 등장하는 그 새벽종은 박대통령이 한때 신앙생활을 했던 구미 상모교회 새벽종소리였다는 것이다. 그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알뜰 그렇게 교회 새벽기도 종소리 노래하면서 나아갔더니 한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된 것이다.

신앙의 기본-예배와 교회

영국이 얼마나 번성했는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영국의 깃발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런데 몇 년전 컨퍼런스를 위해 가보니가 영국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것을 보았다. 한 인교회와 제대로 된 교회가 몇 개 있었다.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칭해야지 후원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교회 빌딩이 팔려서 술집, 빵집, 댄스장이 되었다.

어떤 빌딩에 이르렀는데, 모양이 교회였다. 그런데 좌우에 간판이 따로 세워져있었다. 한쪽에는 'Under 21'이라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목사님 설교를 안내하는 내용이 있었다. 원래는 교회였던 이 빌딩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세를 주었는데, 2층은 여전히 교회로 사용하고, 지하는 나이트클럽이 되어서 21세 이하는 못 들어간다는 표시였던 것이다. 원래는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 않으니 이젠 나이트클럽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등장한 것이다.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 삶도 같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교회가 식당 빵집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었다. 영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게 작고 초라하다. 차도 작고, 집도 작고, 길도 좁다. 식당이라고 들어가면 서로 의자를 부딪히며 식사를 해야 한다. 호텔은 별이 서너 개가 되어도 오래되고 물도 시원하게 나오지를 않는 데, 비싸기까지 한 것을 본다.

그런데 미국 땅을 한번 보라. 미국만큼 모든 게 갖춰진 곳이 없다. 시골 어디를 가나 호텔이나 모든 생활여건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음을 본다. 그 바탕가운데 역사를 추적해보면 교회를 중심한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오래전 유럽에서 배가 각기 다른 목적 다른 방향으로 출발을 했다. 남아메리카로 가는 배가 있고 북아메리카로 오는 배가 있었다. 남아메리카로 가는 배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 가는 배였다. 그들은 황금을 찾았다. 그러나 지금 저들의 삶의 결

론은 피폐하기 짝이 없다. 마약의 소굴들에게 그냥 선교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신앙제일주의로 살지 못할 때, 땅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사람들이었다.

1984년도에 필자가 중학교 다닐 때에 LA올림픽을 TV로 본 기억이 있다. 올림픽을 할 때 제일 먼저 미국의 초창기 역사를 꼭 보여주는데 있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는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교회를 세우고 다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집을 만들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담임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몇 달을 말씀하신 기억이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왜 그 나라를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왜 그 나라를 축복하셨는지 아느냐? 그러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라,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랬던 기억이 선명하다.

별들 한장이라도 얻을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기준과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와 기본이 되어 있으면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이 되는 예배를 빼놓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를 빼놓고 삶의 축복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인생의 계획을 아무리 잘 짜본들이 기본이 무너져있으면 믿음의 가문, 축복의 삶, 복된 세상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의 교회에 별들 한 장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복된 백성이 살아가는 땅을 축복하여 주시리라.

davidnjon@yahoo.com

동부교계 게시판



2018종교개혁기념 교회를 위한 신학컨퍼런스

2018종교개혁기념 교회를 위한 신학컨퍼런스가 10월 22일(월) 오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열린문장로교회(담임 김용훈 목사)에서 열린다. 주제는 "종교개혁과 목회와 신앙"이며 강사는 강영안 교수(미국 칼빈신학교), 정성욱 교수(덴버신학교, 조직신학), 조진모 목사(필라델피아연합교회 담임), 심현찬 원장(워싱턴 트리니티연구원), 등록비는 25달러(점심 제공). 열린문장로교회와 워싱턴 트리니티연구원 주최한다.

▲문의: (703)318-8970(#103), (517)375-5455

2018년 미동부지역 Imago Christi 영성훈련세미나

2018년 미동부지역 Imago Christi 영성훈련세미나가 10월 15일(월)부터 10월 17일(수)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수-오후 12시까지) 뉴저지 필그림 선교센터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목사, 선교사 및 사모. 등록비는 일인당 100달러(교재비, 식사 포함). 강사는 박동건 목사(KCRM 대표), 양춘길 목사, 최종대 목사(bigbell59@gmail.com).

▲문의: (312)286-4646

살롯장로교회 가을부흥회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10월 19일(금)부터 21일(주)까지 가을 부흥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본 교회 선교목사이며 세계적인 인신교대회 이사장 신동우 목사.

▲문의: (704)877-6642

교사 부모 세미나

뉴욕어린이전도협회(대표 최종대 목사)가 주최하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 교사 부모 세미나가 열린다. 뉴욕: 10월 23일-12월11일 매주 화요일 8주(English Teaching) 오후 7시30분-10시, 뉴욕교회(담임 김성기 목사) 뉴저지: 10월 25일-12월 13일 매주 목요일 8주 오후 7시30분-10시, 주수원교회 교육관(담임 육민호 목사). 온라인 등록비는 165달러(15일 이전 등록 140달러). 자세한 내용은 https://1drv.ms/f/s!AqCSnEXZwXEnCj3Yy5BRu-95p7K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312)286-4646

이광희 목사 은퇴 및 출판감사예배

이광희 목사(할렐루야뉴욕교회 원로) 고회 및 성역 40주년과 은퇴, 제 5집 작곡 책 출판기념 감사예배와 미니콘서트가 11월 5일(목) 오후 6시 대동연회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행사는 가족들이 주관한다.

▲문의: (718)744-5868

테너 솔리스트 모집

뉴욕 풍아일랜드에 위치한 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사, www.chamsarang.us)에서 테너 솔리스트를 찾고 있다.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연습시작, 오후 연습은 2시 30분에 마친다. 맨해튼과 플러싱 지역 모두 라이드가 가능하다. 사례비는 500달러.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josephan1983@gmail.com

북미원주민선교회 가을부흥성회

뉴욕교회 연합 산하 북미원주민선교회가 주최하는 가을부흥성회가 10월 26일(금)부터 28일(주)까지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린다. 시간은 금, 토 오후 8시, 주일은 오후 4시. 강사는 민경설 목사. 29일(월) 오전 10시30분에는 민경설 목사가 목회자 전도 동력 세미나를 인도한다.

▲문의: (917)514-0369



예장(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임직식을 마치고 임직자들이 노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문삼성, 김혜영, 양명철 목사 임직 예장(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 임직식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미주동부노회가 지난 7일 오후 5시 목사 임직식을 갖고 3명의 목사를 임직했다. 임직자는 문삼성, 김혜영, 양명철 목사.

문삼성 목사와 양명철 목사는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며 간호사였던 김혜영 목사는 병원 특수사역을 하게 된다.

김혜영 목사는 답사를 통해 "저의 삶이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저의 현재와 미래가 예수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매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임직식은 노회장 한준희 목사 사회로 임직자 소개 후 서약, 안수기 도, 약수례, 성의착의, 공포, 임직패 증정, 권면, 축사, 축주(문태국), 담사, 광고, 축도(문삼성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안수위원은 송원섭, 이종명, 임준환, 장규준, 주효식, 함성은, 한준희, 신우철, 서문도, 김경열 목사. 권면은 송원섭, 이종명 목사가 축사는 임준환, 문석호 목사가 담당했다.

임직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노회장 주효식 목사 인도로 장규준 목사가 기도하고, 한준희 목사가 "말씀이 기준인 사람"(눅22:54-62)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받은 사명 사랑의 섬김으로 감당하자"

뉴저지 5개 교계기관 새 회기 출발 연합기도회

뉴저지 교계 각 연합회가 새 회기를 출발하며 연합기도회를 열었다.

지난 1일 오후 7시30분 목사회 주관으로 뉴저지순복음교회(담임 이정환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교협(회장 홍인석 목사), 목사회(회장 김중윤 목사), 은퇴목사회(회장 정창수 목사), 장로연합회(회장 윤석래 장로), 사모회(회장 이순린 사모) 등이 참여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김중윤 목사회 회장은 목사회에 국한된 제안이 확대돼 연합기도회로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기도회는 김중윤 목사 인도로, 기도 유포우 목사(목사회 부회장), 설교 홍인석 목사(교협 회장), 한글기도 송호민 목사(목사회 회계), 특송 목사사모합창단, 기도, 특송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광고 김주현 목사(목사회 총무), 축도 김정국 목사(은퇴목사회 부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정창수 목사는 은퇴목사회 회장의 기도 후 친교가



뉴저지 5개 교계기관 연합기도회를 마치고 출연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진행됐다.

홍인석 목사는 "새 계명, 새 회기"(요13:34-3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위해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며 격려했다.

홍 목사는 "하나님께서 뉴저지 교계 기관들과 지역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

다"며 "모든 지역 단체와 교회들이 주님과 하나가 돼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섬김의 제자가 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구나'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새 회기 동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 가을 수양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행복한 목회자와 성경적 설교자" 강의 총신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 가을 수양회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회장 이재철 목사)가 지난 10월 1일과 2일 1박2일 일정으로 애틀랜타시에 있는 골든 너기트 애틀랜타시티 호텔에서 2018 가을 수양회를 가졌다.

수양회 동안 진행된 세미나는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류 목사는 1일 저녁에는 "행복한 목회자와 성경적 설교자"라는 주제로, 둘째 날 오전에는 "제자훈련과 설교"와 "청중을 깨우는 설교전략"이라는 주제로 2회 강의했다.

이번 수양회에는 60여 명이 참석해 동문간의 우의를 다졌으며,

류응렬 목사 강의를 통해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 류응렬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90회 동문으로 미 남침례신학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설교학으로 Ph. D를 받았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와싱턴중앙장로교회(KCPC) 담임목사와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객원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는 내년 1월 7일(월) 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신년 하례회를 갖는다.

(정리: 유원정 기자)



퀸즈 YWCA 김은경 사무총장(앞줄 꽃다발 든 이) 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 YWCA 김은경 제대 사무총장 취임

퀸즈 YWCA가 제 7대 김은경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지난 2일 오전 11시 본 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사무총장은 "YWCA가 올해로 40년이 됐다. 지나간 40년의 발자취를 이어가며 새로운 세대에 부합하는 여성 리더십을 개발하고 돌봄과 나눔을 통해 평화를 실천하며 이 커뮤니티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했다.

지난 9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김은경 신임 사무총장은 고 김리관 목사의 장녀로 서울대학교와 맨해튼 음대 작곡과 박사원을 졸업한 뒤 약 20여 년간 뉴욕에서 활동했으며, 무지개의 집과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사역해왔다.

퀸즈YWCA는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농산물 나눔 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동양화·태권도·공예·에버그린 합창단 등 시니어 프로그램, 성인 이민자를 위한 단계별 영어 프로그램 및 여성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은 뉴욕주와 뉴욕시 정치인들과 목사 및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영아 관회장의 사회와 정진호 목사(그루터기장로교회)의 기도로 시작됐다.

한편 퀸즈YWCA는 10월 20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을 페스티벌을 열고 핀킨·페이츠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718)353-4553.

(기사제공: 퀸즈YWCA)

안 일어날 줄 믿는다"고 말했다. 기도순서를 통해 10개의 기도제목을 놓고 릴레이 기도가 이어졌다.

△각 기관의 새 회기 영적 출발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이정환 목사 △목회자 가정 환우 회복 및 영적 위로와 건강을 위해/김태수 목사 △미자립교회 성장과 목회자의 성령충만을 위해/양혜진 목사 △지역 모든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의 연합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육귀철 장로 △은퇴목사회의 영적사역과 회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송호민 목사 △뉴저지 사모회의 성장과 사모들의 영적 위로와 건강한 삶을 위해/김신길 사모 △신설 장로연합회의 회원확보와 교계 장로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정일권 장로 △조국과 미국의 영적부흥 및 의정자들의 신앙을 위해 그리고 11월초 예정된 목사회 이웃사랑실천을 위한 감동담고기행사를 위해/김동근 목사 각각 기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제 3차 임실행위원회 1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11월 총회 준비

제3차 임실행위원회... 업무회계보고, 신입회원 1명 가입

제 46회기 뉴욕목사회가 지난 9월 제 3차 임실행위원회를 가졌다. 11월 정기총회에 앞서 마지막으로 열린 임실행위에서는 그동안의 업무보고와 회계보고, 신입회원 가입 등의 안건을 보고 처리했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많이 모이기 원했지만 목사님들이 시간이 없는 것 같다"며 "기독단체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기사거리가 되지 않도록 1년을 지내왔다. 45회기에 이어 스코틀랜드 종교사적적 탐방을 했으며 임원들이 수고했다"고 말했다.

총무보고에서 장학금 전달은 신청자 9명 중 회원자녀 신학생 5명에게 각 1천달러씩, 서류가 미비된 4명에게도 각 5백 달러씩 총 7천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9월 28일 조직된 선관위원회는 위원장 송병기 목사, 서기 박시훈 목사, 위원 신현택 목사(법규), 김주동 목사(서기), 안경순 목사(회계), 김상태 목사, 전희수 목사로 구성됐다고 보고했다.

회계보고는 2017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수입 95,496.49달러, 지출 96,557.10달러, 잔액 -1,-60.61달러로 보고했다.

신입회원은 김광섭 목사가 승인

받았다. 김광섭 목사는 뉴욕리폼드신학교(학장 유상열 목사)를 졸업하고 중부뉴저지장로교회(담임 이원호 목사)에서 전도사로 2년간 사역했으며, 2017년 10월 예정(합동총신측) 미주동부노회(노회장 강신용 목사)에서 목사안수 받았다.

회의는 전희수 목사의 폐회기도 및 식사기도로 마쳤다.

회의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한 기술 목사 인도로 기도 마바울 목사, 말씀 박수철 목사, 통성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광고 김주동 목사, 축도 이규형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수철 목사는 "이성적인 교회의 조건"(제21:21-22: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복음적, 유교적, 불교적, 사마니즘의 4대 사상이 뒤엉켜 있는 것이 문제의 내막"이라며 "이성적 교회가 되려면 ①하나님 중심 ②믿음 바탕 ③은사 충만 ④사랑 충만 ⑤예수생명의 말씀중심 ⑥은혜 충만 ⑦열매 맺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목사회 정기총회는 11월 26일(월) 뉴욕새해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 제17회 후원 모금 갈라에 참석한 이사들이 기념촬영 했다.

패밀리터치 제 17회 후원 모금 갈라

패밀리터치(원장 장정숙 박사) 제 17회 후원 모금 갈라가 지난 10월 4일 뉴저지 다블트리 호텔에서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에는 그동안 패밀리터치를 통해 봉사한 학생들 중 11명에게 대통령 봉사상 메달을 수여했다.

김선 이사장은 "패밀리터치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해를 맞았으며, 이사회와 스태프들이 기존의 비전과 미션을 재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연설했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제 제 39회 HYM 청년연합집회, 강사 더글러스 김 목사

제 39회 HYM 청년연합집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행20:19-24)’이라는 주제로 13일과 14일 양일간 오후 7시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월드플레이어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집회의 강사는 HYM대표이자 20년 가까이 청년연합사역에 헌신해온 더글러스 김 목사. 더글러스 김 목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 할 수 있어야 한다”

며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상 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쓰임 받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말했다.

그는 또한 “그 어떤 어려움과 수고를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신앙고백이



더글러스 김 HYM대표가 39회 청년연합집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A새한교회 창립40주년 기념 감사찬양제에서 전출연자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LA새한교회 설립40주년 감사찬양제 성황

LA 새한교회(담임 정세훈 목사) 설립 40주년 감사찬양제가 6일 오후 7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세훈 목사는 “새한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설립 40주년을 맞이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며 “40주년 감사 찬양제를 맞아 주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협력해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작년 감사찬양제는 새한찬양대(지휘 김종석), 뽀시바이여성찬양대, 레위남성성가단(지휘 곡명규)가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또한 본 교회 류향자 집사의 독창, 오평섭 집사와 박성웅 전도사의 이중창이 있었으며 정남열 집사의 축시 낭독이 있었다. 이날 찬양제는 새한찬양대와 레위남성성가단의 연합합창이 있은 후 정세훈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교회에서 열린 추계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이경은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주제

은혜한교회 추계부흥성회, 강사 이경은 목사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추계부흥성회를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잠 4:1-7)’라는 주제로 4일부터 7일까지 이경은 목사(순복음 진주조대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했다. 7일 오전 9시20분에 열린 주일 집회에서 이경은 목사는 “말씀을 지키면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마음을 지키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위치까지 주님은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때이며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 따라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열린 첫날 저녁집회는 ‘부부의 도리’(고전7:3), 5일 열린 둘째 날 새벽집회는 ‘믿음의 공식’(눅17:5-10), 저녁 집회는 ‘예배로 성공하는 인생’(출20:24), 6일 열린 셋째 날 새벽집회는 ‘응답의 걸림돌’(잠28:9), 저녁집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롬8:26-28), 주일 오후 집회는 ‘자녀의 도리’(신28:1)라는 주제로 이경은 목사가 각각 말씀을 선포했다.

(박준호 기자)

선포돼야 한다”며 “사도 바울의 신앙고백이 이번 39회 HYM 집회에 참가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HYM집회는 첫날 HYM연합찬양팀(인도 국중현 형제)의 찬양인도와 더글러스 김 목사의 말씀선포, 그리고 합심기도 및 결단의 시간으로 이어지며 둘째 날은 은혜한교회 청년부 찬양팀이 찬양인도를 하게 되며 김 목사의 말씀선포와 결단의 기도 시간으로 이어진다.

더글러스 김 목사는 HYM 청년 선교사역이 이 시대의 청년들을 연합해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한 성령 부흥을 일으키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토렌스선한목자교회 창립17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에서 임직받은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난을 복으로” ... 권사 3명 임직

토렌스 선한목자교회 설립17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토렌스 선한목자교회(담임 김현수 목사) 설립 17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이 7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임직자는 김명희, 윤성원, 허미옥 권사.

본 교회 찬양팀(담담 김창근 목사) 찬양인도와 김현수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강중경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전기철 목사(강남 새사람교회 담임)가 ‘고난을 복으로 바꾸십시오’(창50:15-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전기철 목사는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었으며 누가 보더라도 원망해야 하는 환경에 처했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다”며 “우리 각자의 삶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바란다. 그러면 고난의 장벽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커지게 되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가 메아리 같고 역사하지 않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는 때다. 따라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믿는다면 길은 열리게 될 것”이라 말하고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권사 임직식으로 이어졌으며 강제희 자매가 특송을 불렀으며 교회설립 17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교회 발자취를 담은 영상이 소개됐다.

이날 예배는 김현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5일부터 7일까지 설립기념 추계부흥회가 전기철 목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박준호 기자)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에서 신애라 집사가 간증하고 있다

“인생의 2막, 가야할 길 가겠다”

나성영락교회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 성황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를 5일 오후 7시에 성황리에 개최했다. 신애라 집사는 “중3때 교회에 가기 시작했으며 교회 가는 것이 좋았다”며 “하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건 결혼 후 29세 때였다”고 말했다.

신 집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의무를 주셨다”고 강조하며 “세상이 너무 악했었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다른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애라 집사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연기자로 가고 싶은 길을 갔다. 그러나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가야할 길을 가려고 한다. 현재 학교에서 공개강좌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공부를 마치고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 인생의 2막, 즉 가야

할 길을 가는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 말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효련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간증집회는 신애라 집사가 간증을 마친 후 박은성 목사가 청중들과 함께 신애라 집사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

이날 집회는 박은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미디어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SBS 이상호 PD가 강의하고 있다

서부교회게 게시판

제 2차 소망건강 콘서트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최하고 카이론 토발이 후원하는 제 2차 소망 건강 콘서트가 10월 13일(토)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열린다. 건강콘서트는 육체의 건강을 위한 전문가의 건강 세미나와 마음의 건강을 위해 음악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으로 한인커뮤니티의 건강한 삶을 위해 새롭게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강사는 UCI 방문교수인 편성범 교수(서울 고려대의과대학)이며 ‘건강한 뇌, 즐거운 노년’이란 주제로 뇌와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society.org

제 39회 HYM청년연합집회

제39회 HYM청년연합집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주제로 13일(토)과 14일(주) 양일간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월드플레이어센터에서 갖는다. 강사는 본회 대표인 더글러스 김 목사이며 집회시간은 오후 7시.

▲문의: (714)393-5135

무료 영어수학 교육 안내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 Ministry(선교와목회를위한정보센터, 대표: 제임스구 교수)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정부학자금 보조-Federal Student Aid(FSA)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 차원으로 FWS 공공커뮤니티서비스인 무료 영어와 수학 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작문(Writing) 및 수학 공부가 부족한 모든 학생(초등, 중등, 고등 포함)을 대상으로 열리는 본 프로그램의 기간은 11월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이며 장소는 본교 도서관 GL2 강의실(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문의: (714)515-5431(Library)

한민족 자유대한국인을 위한 특별강연회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 한미애국인협회는 12일(금) 오후 3시에 남가주 부엔나 팍의 더 소스(The Source) 물 중앙문화센터(6940 Beach Blvd.)에서 한민족 자유대한국인을 위한 특별 강연회를 연다. 일정은 1부 ‘복합문화권에서 리더십 세우기’라는 주제로 남가주 한국 예비역기독교인회장 김희창 박사(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대표, 인터컬처럴리더십연구원), 2부는 ‘남북 중전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양준용 정치외교학박사가 각각 강의한다.

▲문의: (562)237-3298

나성영락교회 말씀집회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말씀집회를 12일(금)부터 14일(주)까지 갖는다. 강사는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2일(금) 오후 7시, 13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14일(주일) 1-5부 예배.

▲문의: (323)227-1400

부교역자 청빙

나침방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EM(풀타임/파트타임)과 실버사역(파트타임)을 담당할 부교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목회비전서, 신앙간증서, 추천서 각 1통을 이메일(help@nachimban.net)로 보내면 된다.

▲문의: (562)691-0691

2018 다민족연합기도회

2018 다민족연합기도회(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오는 28일(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10)995-3936, (213)255-1725

라팔마연합감리교회 38주년 설립주일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 설립 38주년 기념예배가 14일(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이날 예배에서는 임직식도 함께 갖는다.

▲문의: (714)226-0300

“미디어 중독은 사탄의 전략”

나성순복음교회 미디어세미나, 강사 이상호 PD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3일 저녁 7시30분 본 교회 수요예배시간에 미디어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이상호 온누리교회 집사(SBS PD, 한국기독교연인연합회 총무)가 강사로 나서 ‘미디어의 영적실상’(예4:13-14)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상호 집사는 “미디어 시대에 사탄의 전략은 대중매체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이용해 미

디어에 중독되게 만들어 대중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 성령님을 통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미디어에 중독되는 과정은 악한 영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에게 대중들이 영향을 받게 하며, 그들이 악한 영들에게 영감 받아 만든 콘텐츠를 접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누락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집사는 “스마트폰의 전자파는 청소년 성장발육에 장애가 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요소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침시 3미터 이상 스마트폰과 떨어져야 하는데 미디어박스를 거실에 만들어 취침시간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 집사는 “미디어 콘텐츠의 상당수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고 있다”며 “자녀의 미래는 전적으로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30만명 연합예배”

한국교회교단장회의, 기념행사준비 연합기관 통합논의 등 보고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모임을 갖고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와 연합기관 통합 논의의 상황을 보고했다.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은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기독교가 주축이 돼 서울 광화문에서 30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연합예배는 물론 학술대회와 오페라 공연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차상대에 놓인 연합기구 통합 움직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변창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사무총장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3개 단체가 기구 통합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한기총이 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변 사무총장은 “대신 한교총과 한기연이 기구를 통합하기로 하고 연석회의와 통합 기자회견까지 열

었지만 한기연 내부 사정으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동상에 옹호·조장 정치인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종철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은 “전북에서 목회를 하는데 단재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앞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동상에 옹호·조장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악법을 추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총회장 시대 먼저 열어 자부심”

‘예장교단 첫 여성총회장’ 개혁총연 정상업 총회장 취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총연)는 2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첫 여성 총회장 정상업(64)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정 신임 총회장은 지난달 10일 서울 강동구 중흥교회(엄신형 목사)에서 열린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개혁총연은 회신교회가 2000여 곳인 중형 교단으로 여성이 총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103회기를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중에서도 여성이 총회장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취임 예배에 하루 앞서 1일 가진 인터뷰에서 정 총회장은 “개혁총연이 ‘여성 총회장 시대’를 가장 먼저 열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

앞으로 다른 많은 교단에서도 여성 총회장이 배출돼 여성의 리더십이 크게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혁총연 총회장은 다른 교단에 비해 선출되기가 까다롭다. 이는 개혁총연이 남부·서남부·동북아·중부·한남 5개 대회가 있는 대회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장은 대회장 대회장 부총회장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5년에 한 번밖에 선출될 기회가 없다. 대회별로 돌아가면서 총회장을 뽑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이 총회장이 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다.

정 총회장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총회 전날 밤 교단

수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기도해야 했다”며 “그와중에 이사가 41장 10절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더니 평안이 몰려왔고 임기 중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실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 은빛교회 담임인 그는 교단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연합하고 화합하는 여성 리더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정 총회장은 세계복음화여교역자협의회 대표회장장과 새남포월드협의회 여성대표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총동문회 실무 부회장, 한국기독교영양회 상임회장, 기독교기독교 동분부 부총재를 맡고 있다.

임기는 1년이다. 정 총회장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총회가 되겠다.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임

박 총회장은 “성경적 진리수호 앞에 한국교회는 정치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유권자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각 교단과 노회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다”고 전망했다.

교단장들은 빌리 그레이엄 2020 전도페스티벌, 한국어 구약성경의 최초 번역자인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 C채널 주최 청년취업박람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교단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총회장들이 인사했다. 교단장회의 총무는 이경욱 전 예장백석대신 사무총장에 이어 엄진용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무가 맡기로 했다.

기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며 사랑하겠다”면서 “특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속화, 다원주의 등을 막고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감사예배에서는 전 총회장 엄신형 목사가 ‘특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엄 목사는 “하나님께서도 정 목사를 첫 여성 총회장으로 특별히 부르셨다”며 “하나님이 정 목사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도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에는 전 총회장 진상철 배동률 엄바울 최원석 최원남 목사와 직전 총회장 이은재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진호 전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유중현 대표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우 총신대 총장 유죄 확정

법원,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선고

법원이 배임증제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총신대) 총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5일 열린 공판에서 “김 총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부총회장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던 2016년 9월 자신에게 상환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총회 진행권을 가진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총회결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을 초래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박 목사가 “피고인이 대구까지 찾아와 부총회장 자격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선관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후보 자격이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 보다 선관위 15명 중 3분의 2인 10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자격을 확정짓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총회 회의의 진행권한을 가진 박 목사를 찾아가 청탁을 했을 만한 근거가 충분한 점, 피고인이 문제의 2000만원을 병원비와 해외선교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의 친분관계가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김 총

장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짧게 답했다. 판결에 불복할 시 피고인은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엔 총신대와 총신대신대원 학생 등 총신대내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태 교수) 측 인사들이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광탄락 총신대신대원대책위원장은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기 힘들다”며 연신 눈물을 닦았다. 그는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감사하다”며 “다시는 총신대에 불의한 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총신대 학생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칙, 정관 수정 등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수 학생 직원이 연합해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과 동행한 인사들은 “법정 구속은 생각지 못 했다”며 착잡해 했다.

한국사회 위기 돌파할 믿음·용기 구한다

기독교선교 햇불재단, 2018 햇불연합대성회

한국사회는 영적인 기로에 놓여 있다. 인권과 난민이란 이름으로 동상에, 무슬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 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남북 간 화해무드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그로 인한 갈등과 반목, 격정이 상당한 상황이다.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이사장 이형자)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2018 햇불연합대성회’를 개최한다. ‘복음으로 통일하라’는 주제로 오는 15일 서울 양재동 햇불선교센터 사랑성전에서 진행된다. 전국 햇불회 회원들은 물론 한국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햇불재단은 목회자와 사모 등 영적 리더를 모인 햇불회를 운영하면서 전국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매년 햇불연합대성회를 열고 있다.

이형자 이사장은 “동성애와 동성혼 및 이슬람 난민문제, 경기 악화 등이 나라가 경제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함께 모여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기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통일 기대감이 높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서구 열강 사이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

야 할 일은 결국 기도 밖에 없다. 햇불재단은 3만2000여명의 탈북민을 통일의 마중물로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통일 이수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햇불재단은 “이에 대해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 복음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통일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이 나라를 사용하시기 위해 통일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다.

햇불재단과 각 지역 햇불회는 이번 집회를 위해 40일간 아침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 15개 지역의 16개 햇불회는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왔다.

대성회는 세 번의 집회로 진행된다. 양병희(영안장로교회) 목사가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탈북민 1호 목회자 강철호(새티교회) 목사와 탈북민 송신복(하나비전교회) 목사, 유정은(하나무혜교회) 전도사가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강연한다. 마지막 집회에선 한홍(새로운교회) 목사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한다. 집회 후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통성기도한다.

연합 사모햇불회 합창단과 세계적 성악가인 바리톤 유동진 집사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다 (torchcenter.org).

대표회장에는 채영남(광주성서화운본부 대표회장) 목사, 상임회장에는 이종승(경남성서화운본부 대표회장) 목사가 추대됐다. 또 각 지역 성서화운본부 대표회장인 허원구 임재택 이관영 김종술 진영식 조근식 목사가 공동회장을 맡았다. 백승기(부산성서화운본부 사무총장) 목사는 실행위원장이 됐다.

윤재현(전남동부성서화 대표회장)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서 이종승 목사는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관영(경북성서화 대표회장) 목사가 기도하고, 임재택(대전성서화 대표회장) 목사가 축도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준비위원장 백승기 목사가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준비위 기획위원 김정식 목사가 경과 보고했다. 협의회는 사업계획안을 결정하고 귀어취재 반대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

기감 9개 연회 새 감독 선출

교단 정상화 초석 다질까...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연회 감독 선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진로를 꾸렸다. 교단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새 감독들 에겐 벌써부터 직무대행 체제를 조 기 공식하고 감독회장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취임식은 오는 30일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열리는 기감 제 33회 행정총회에서 진행된다.

단독후보가 출마한 서울·서울남·충청연회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자를 확정했다. 서울 원성웅, 서울남 전주구, 충청 김규세 감독이 각 연회를 대표하게 됐다.

복수 후보가 출마한 연회들은 경합 끝에 감독을 뽑았다. 김학중 목사와 하근수 목사가 경합해 조미의 관심을 모았던 경기연회는 김 목사를 낙선했다. 94.97%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동부연회는 최선길 목사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중앙연회 감독이 된 김종현 목사도 상대후보보다 세배 이상 많은 득표를 했다. 이 밖에 중부 박병홍, 충북 조기형, 삼남 김종복 목사가 감독에 당선됐다. 감독의 임기는 2년이다.

남부연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두 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등록을 취소해 이날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남부연회는 8일부터 양일간 다시 후보자 접수를

받아 오는 15일 선거를 실시한다.

기감 감독의 권한은 장로교 노회장들보다 크다. 우선 연회 행정과 총괄하고 목사를 안수하는 전권과 연회 산하 교회의 담임목사 직권 파송권한까지 갖고 있다.

이날 선출된 감독들은 혼란스러운 직무대행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 감독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았다.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상 운영 중인 기감은 직무대행도 다시 뽑아야 한다는 일부 총회실행부위원(총실위원)들의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열린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이 직무대행이 예초에 후보 자격이 없었고 이에 따라 직무대행 선출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기감은 재판 전 재판위원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 접수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총실위원은 직무대행의 권위(關位)를 주장하며 직무대행 선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기복 기감 선거관리위원장은 2일 “어려운 시기에 연회를 이끌게 된 감독들이 아무쪼록 겸손하게 기감의 혼란을 잘 수습하시길 당부한다”면서 “남부연회 선거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공정한 선거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성에 비판 ‘가짜뉴스’로 모는 시도 반대”

동반연 등 300여 시민단체 청와대 앞 도로에서 집회

동성에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300여 시민단체는 4일 서울 청와대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짜뉴스’로 몰아가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최근 한겨레신문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수 약사 변호사 등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으로 몰았지만 팩트 체크 결과 한겨레신문이 주장했던 가짜뉴스가 오히려 진짜뉴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무력화한 뒤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면서 “아무리 가짜뉴스 혐오표현으로 낙인찍고 탄압한다 해도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다음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를 전하자”고 말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재 변호사도 “헌법상 국민은 사생활 표현 학문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 동성애가 왜 과학적·학제 법적으로 나쁜지 밝혀왔다”면서 “그런데 일부 세력이 정당한 표현을 무조건 가짜뉴스, 혐오표현인양 몰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내 독소조항의 폐해를 지적하기 위해 법무부 인권국장을 만났는

데 ‘기독교는 혐오만 하는 단체’라는 발언을 하더라”면서 “이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오라는 용어를 사용해 상대방의 말과 생각, 입장을 통제하려 한다던 인권 독재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황수현 미국 변호사도 “이미 장애인 여성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혐오 가짜뉴스로 또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것은 반대자의 입장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거짓 프레임에 가두지 말라”고 말했다.

집회에서는 문제인정부 들어 임명되는 동성에 동성혼 옹호·조장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제인정부는 군형법 폐지소송 단장이었던 이석대 헌법재판관을, 군형법 폐지 법안을 제출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동성애물을 유해 매체물에서 제외시켰던 최영에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했다”면서 “이념화된 인권, 가짜인권을 두둔하는 인사 임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부산 울산 대구 등지에서 온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방부 주재 대대북무제 공청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앞으로 자리를 옮겨 대대북무제가 종교적 영역 기피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 청빙 반려 김수원 목사”

서울고법 “직무유기 아니다” 판결

법원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건을 반려한 김수원 목사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인 최관섭 목사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1심의 각하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최 목사는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인용한 총회 재판관 판결에 불복하며 효력정

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에 제기했다 각하했다.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을 결의한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를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사회법원과 총회 재판관 모두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지 않다는 김수원 목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5차례 논의한 끝에 명성교회 청빙안을 반려한 만큼 김 목사 개인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위반 여부 문제일 경우 안전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회장 승계에 관해서도 목사 부 노회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이 전제 돼있고 법원은 해석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오는 30일 정기회의를 소집해 노회장 등 임원선출을 다룰 예정이다.

“교회 신뢰회복 통해 거룩한 도시 만들 것”

‘한국지역성서화운동협의회’ 창립…대표회장 채영남 목사

전국 시·도 지역 성서화를 위한 ‘한국지역성서화운동협의회’가 4일 창립됐다. 한국지역성서화운동협의회는 전국 시·도 지역 성서화운동본부의 수평적 협의체다. 이들은 이날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시·도 지역 성서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펼치는 데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영호남한마음 성서화대회에서 지역의 성서화운동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협의회 출범을 결정했다.

대표회장에는 채영남(광주성서화운본부 대표회장) 목사, 상임회장에는 이종승(경남성서화운본부 대표회장) 목사가 추대됐다. 또 각 지역 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인 허원구 임재택 이관영 김종술 진영식 조근식 목사가 공동회장을 맡았다. 백승기(부산성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목사는 실행위원장이 됐다.

윤재현(전남동부성서화 대표회장)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향 폐지를 위한 성명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3일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채 대표회장은 “기존의 세계성서화운동본부가 추구하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거룩한 도시’라는 가치를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역 성서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한 정보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선교칼럼 (49)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스페인어 책

교도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교도소에 영어예배와 성경 공부는 있지만 히스패닉 재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스페인어 성경조차 없었다. 교도소에서 성경이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던 최사라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스페인어 성경책을 사도록 500불을 기부 해주셨다. 그 후 몇몇 교회들도 스페인어 성경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성경책을 기증했다. 그 후 교도소에서는 스페인어 성경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히스패닉 재소자 리더들이 그들도 예배와 성경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스페인어를 못하기 때문에 재소자 리더들에게 내 설교를 주면서 번역을 해서 그들이 설교문을 예배에서 읽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기도 모임과 찬송을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스페인어로 예배를 인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오도록 기도하라고 했다.

변화 프로젝트는 그 당시 영어로 된 책만 출간하고 있었다. 히스패닉 리더들은 내가 쓴 "예수님과 걷는 길"을 읽고 스페인어로 출간해 주길 요청했다. 나는 그들에게 번역을 부탁했고 F동의 3명의 히스패닉 리더들이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통역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도가 느렸지만 진심으로 자기 동족을 돕고 싶어 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패닉 자원봉사자 목사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교도소에서 매주 일곱 번 스페인어 예배를 제공한다. 2007년에는 멕시코 사람들의 예배 출석자가 매달 평균 246명이었고 일년 총 출석자는 2,948명이었다. "예수님과 걷는 길" 책을 번역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번역하던 3명의 재소자는 우리 시설을 떠났지만 또 다른 재소자가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모두가 방으로 돌아가고 소동이 되었을 때 번역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F동 방에 갔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책을 읽을 만큼 충분한 밝기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책상에 앉아서 희미한 빛만으로 "예수님과 걷는 길"을 번역하는

것을 본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그는 번역을 끝마쳤고 이 프로젝트에 관한 기금 또한 모여져서 스페인어 책 20,000권을 출판했다.

2010년에 내가 편집하는 것을 도와주고 특별히 스페인어 번역을 도와준 사람들 중에 미에야 비즈카라라는 여자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스페인어 책 편집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녀를 만났다.

어느 날 F 1400동에서 미에야가 스페인어 편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스페인어 책 마지막 교정을 봐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더 출판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여 그 일을 훌륭하게 해냈고 후에 책들이 출판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책 교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책 프로젝트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

"열매"-미에야 비즈카라

내가 체포되고 한 달이 안 되어 재소자들이 맥도날드 목사님을 도와서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책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 내용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들이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을 돕는 것을 알았을 때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난 아니야! 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쁜 사람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그 당시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금식하며 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게 여러 가지 기도 프로젝트 소책자를 주었는데 나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로 쓰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변화 프로젝트를 도와서 스페인어 수정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다.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마9:37)라는 말씀을 주셨다.

불순종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부

드러운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셨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끝내는 성령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마13:23).
책 수정하는 일은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는다. 만약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도 치유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나누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편집 사역에 동참하는 동안 맥도날드 목사님과 나를 멘토링 해줬던 아름다운 사람들로 인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졌다. 내가 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이해했다. 그 사역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므로 변화 프로젝트의 문서선교 사역이 미 전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도소에 온지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소유를 초월하는 만족 또한 배웠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나는 전에 쉬지 않고 달렸지만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에서 끝낼지는 알지 못했다. 이제야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의 집을 향하여 가면서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투고 칼럼

핑크 예수? 10월에 공립학교에서 선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혼돈하는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거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10월은 "LGBT History Month"란 제목으로 성소수자 행동가들이 전국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정하고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협회에서는 이런 이벤트에 소개된 사람들 가운데 어둡고, 우리 생각을 교란하며 뻔뻔스러운 정치적 선전을 도모하는 인물들에 대하여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도가 넘은 아주 치명적인 것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하면서 공격적인 이슈에 대하여 경고를 드립니다. 이들이 내놓은 31명의 인물 가운데 LGBT History Mont(LGBT란 말은 성소수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영어로 Lesbian-여성동성애자, Gay-남성동성애자, Bisexual-양성애자, Transgender-성전환자의 준말)에 길버트 베이커(Gilbert Baker)란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지개색 깃발을 만든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길버트 베이커란 사람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미국의 영웅이란 잘못된 정보로 알려지고, 미국 국기를 만든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학생들 생각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것은 LGBT 운동의 영웅으로 "분홍 예수(Pink Jesus)"를 만들었던 것이 학생들 생각 속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온몸을 핑크색으로 바르고

핑크색 하이힐을 신고 영어로는 loincloth라고 하는데, 몸에 간담하게 두르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핑크색 가시 면류관을 쓰며 우리 주님을 모독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이들이 만들어 놓은 LGBT History Month에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선전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부모들에게 쇼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관할 때가 아니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빙산의 일각입니다. LGBT History Month에 소개된 나머지 30명의 프로필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은 절대 미국의 영웅으로 소개될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하실 수 있는 일은 태평양양회 웹사이트에서, What Every Parent Needs to Know About LGBT History Month, from PJI.org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읽으실 수 있고, 혹시 읽으시기 힘들다면 주위에 영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간략한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실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논리정연하게 잘 준비된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 교사들과 이야기하시고, 교장과 기타 학교 행정관들에게 LGBT History Month가 공립학교에서 합당하지 않음을 나누시고, 이메일이나 보통 메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고: 통합

교육국의 크기에 따라 이런 행사를 전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교사 개인이 조그마한 규모로 각 클래스 안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약 여러분들 자녀의 학교에서 LGBT History Month를 실행한다고 하면 우리에겐 연려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성별 차별 없이 가르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성별 차별 없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하여 그가 끼친 영향을 배워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LGBT들은 그가 그들의 영웅이라고 선전했다). 그리고 또한 성별에 대하여 혼돈과 어려움을 겪는 일은 우리가 모두 안타까워하며 돌보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우리의 염려는 성을 강조하고, 역사의 사실을 잘못 해석하고, 그 어두운 영웅들의 생애 때문에 나타나서 결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서 위험, 파괴 그리고 이단적 행동을 선전하고 도모하는 것이 염려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는 다른 어떤 그룹도 이런 일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어느 종교도, 어느 단체도, 이것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주).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브래드 다쿠스(Brad Dacus, 태평양양회협회 Pacific Justice Institute 대표)

▲한국어 웹사이트: korean.pacificjustice.org

"옥중 보여준 행동과 성품 수감자에 큰 영향 미쳤다" 필리핀서 126일간 구금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백영모 선교사

"당신이 옥중에서 보여준 행동과 성품은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려운 감옥생활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좋은 모범도 보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은 요즘 좋은 친구가 돼줘서 감사합니다."

불법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서 126일간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2일 보석으로 석방된 백영모 선교사가 받은 필리

핀 수감자 대표의 편지다. 그는 백 선교사의 보석이 허가된 직후 이 편지를 전달했다. 백 선교사는 안티폴로 지역 리잘주립교도소 구금 당시 수감자를 대상으로 성경과 한글을 가르치고 기도모임을 인도했다. 다른 수감자는 백 선교사의 영어 이름인 '다니엘'을 수놓는 가방을 선물했다. 백 선교사는 4일 "매일 1시간씩 성경공부와 한글공부를 수감자들과 함께하며 이들의 신앙 및 한국

어에 대한 궁금증을 채워줄 수 있었다"며 "이런 시간들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백 선교사는 "(건강이) 특별히 나쁜 구석은 없다"고 말했지만 옥중에서 진단받은 폐결핵 치료를 위해 4개월여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재판에 대해서는 "현지법상 폭발물 소지 혐의의 경우 보석이 불가능한데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으므로 향후 재판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사의 의견이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특가 온라인 판촉물 전문기업

핀촉상인 US

us.87sangin.com

FREE SHIPPING!

※현수막, 단체T셔츠 주문 환영

판촉상인 US / 한국서적 HANKOOK BOOKS

◆ Address : 161-21 29th Ave. Flushing, NY 11358 ◆ TEL : 718-762-1200 / 2000 ◆ E-mail : bookskorea@gmail.com ◆ Kakaotalk : moonsyang

신속 정확 착한가격

기독교 서적 및 일반 서적

45% OFF+tax

— 한국서적 —

HANKOOK BOOKS

선교 보고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과테말라 단기선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장경순 박윤정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과테말라 쉼라 지역 산마을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했다. 선교팀은 목사 5명 전도사 1명 장로 1명으로 7명이 참가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2017년 엘살바도르, 2016년 콜롬비아, 2015년 페루, 2014년 콜롬비아 단기선교를 통해 현지선교사 지원 및 해외 아동결연방문, 아동과 성인을 위한 전도집회 및 집짓기 등의 사역을 해왔다.

2018년 과테말라 쉼라 지역 및 치코 지역 단기선교 사역내용은 △치코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교 전도 집회 및 선물 전달 △쉼라 지역 CDP센터 어린이 예배 및 선물전달 △쉼라 지역 이웃초청 전도 집회 △후원아동 가정방문 △부두막 화장실 건축현장 방문 △현지스태프 위로의 밤 행사 등이었다.

장경순 박윤정 선교사의 사역지인 쉼라 지역 산마을은 해발 2,940미터 산중턱에 있는 마을이며 주민들은 카톨릭이 97% 이상이다. 감자,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다.



선교비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전희수 사무총장, 장경순 선교사, 유상열 회장.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36년간 내전으로 인해 산마을로 숨어들었던 곳으로 몇 년 전만해도 어린아이들을 유괴하는 경우가 생겨 타지 사람들에게 폐쇄적이었던 곳이다. 대중교통이 없으며 단기 주일에는 마이크로버스가 다닌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으며, 높고 늘 구름이 덮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영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꿈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삶이 없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러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장 선교사부부는 산마을의 어린 영혼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섬기고 있다. 매주 주일예배를 드리고 주 5회 학교공간을 활용해 CDP사역을 하고 있고 가정심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바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있다.

람들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사형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지혜 중에 지혜이며 능력 중의 능력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된다"며 "이 십자가의 의미는 첫째, 사랑의 십자가다. 불순종함으로 원수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까지 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둘째, 승리의 십자가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한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승리케 하신다. 셋째, 구원의 십자가다. 구약시대의 동물의 희생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대속주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한다"고 전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시간에 꼭 참석해야한다. 그리고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때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아동 유치부어린이 "바야롱": 아버지의 외도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엄마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아버지는 감자농사를 짓는다.

2. 기쁨과영광교회(전희수 권금주 목사): 초등학교 1학년 "디에고" 아빠는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고 지진으로 살던 집이 무너져 지금은 외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다. 유치부인 "에데르" 미혼 모가정이며 집이 없어서 이모집에 살고 있다.

3. 퀸즈침례교회(박진하 목사): 초등학교 3학년 "헤르메르 오마르. 미혼모 가정 학습이 늦어서 11살인데도 학년을 올라가지 못함. 유치부 '아나엘'은 부모님과 5형제가 살고 있고 아버지는 감자농사를 짓는다. 유치부 "텔리아"는 부모님과 살고 있고 아버지는 감자농사를 짓고 삼촌과 고모들이 알베모 유전병을 가지고 있다.

화장실 부두막 건축 가정방문

쉼라 산마을은 씨족마을로서 이곳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놀이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깨진 부두막에서 연기를 마시고 생활하고 있다. 이것이 지속되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은 건강 및 삶의 질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와 장경순 선교사부부와 함께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

화장실도 위생적으로나 안전상으로 미약하고 어느 가정은 미약한 화장실도 없이 자연을 사용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화장실이 완공된 결연아동 아나니아 가정을 방문하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의 팻말을 붙이고 이경명 목사의 격려의 말과 축복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화장실부두막 사역은 현지 엄마들이 동경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역임으로 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 진행된다. 경비는 800달러다(화장실 부두막 함께).

스태프 위로의 밤과 경건회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 기도로 무장하며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사역 일정에서는 차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사역을 진행했다.

꼬불꼬불 산등성이를 돌아가는 길,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고 캄캄한 험한 길, 차가 올라갈 수 없어서 걸어서 올라가는 산마을, 이곳에서 장경명 박윤정 선교사의 과테말라 땅의 영혼들을 위한 땀과 눈물을 생각하니 넉넉히 해낼 수 있었다.

장 선교사님 부부의 선교사역을 돕는 현지인 스태프들에게 선물을 전하며 현지음식을 나누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16면으로 계속)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장폐색

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발생

가끔 소화기 안 되거나 바이러스 장염에 걸리고 나서 음식물을 먹은 후 복통과 함께 구토를 할 때 '장이 막히지 않았나?'라는 걱정을 하면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의 장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정되는데 정상적으로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장염에 의해서는 장이 막히지 않는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50대 중반의 박 모 씨는 3일 전부터 식사 후에 구역질과 함께 구토가 나서 병원을 찾아왔다. 음식을 먹고 나서 2-3시간 후에 속이 메스꺼리고 음식물을 토해냈다. 또 상복부 통증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고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병원에 왔을 때 박 씨는 닷새 동안 대변을 보지 못했다. 박씨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장 수술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가끔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박 씨의 혈압은 정상이었지만 맥박은 분당 110회로 빨랐다. 복부 검진 상 복부가 조금 팽창되어 있고 장음은 현저하게 감소돼 있었으며 만질 때 통증이 심했다. 복부 엑스선 촬영 상 장폐색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단층촬영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박 씨는 장이 막히는 질환인 장폐색이라고 진단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해부학적으로 대장은 지름이 넓어서 꼬이거나 혈액 순환이 차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장폐색이 드물지만 소장엔 지름이 좁아서 막히기가 쉽다. 과거에는 탈장이나 장폐색의 흔한 원인이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장 수술을 하는 환자가 증가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생기는 장 유착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장폐색의 3/4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개복 수술 후 약 5퍼센트에서 장 유착이 나타나고 장폐색 증상을 보인다.

장폐색이 생기면 막힌 부위의 위쪽인 소장과 위가 늘어나게 되고 소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장에 괴사(장이 썩는 것)가 일어나게 된다. 장폐색은 소장 일부만 막히는 부분 장폐색이 있고, 장 전체가 막히는 완전 장폐색이 있다.

수술 후에 생기는 장폐색은 대부분 부분 장폐색으로 비수술적 치료가 수술보다 예후가 더 좋다. 하지만 완전 장폐색인 경우 수술 이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고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장의 괴사가 일어나서 사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분 폐색인지 완전 폐색인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고 수술을 결정하게 된다.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플래그

롤업배너

미디어벽

현수막

2018 교회표어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나를 인도해주신 18년은 거대한 고개 넘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일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5)

Merry Christmas

성탄 축하예배

2017.12.31 주일 저녁 10시 30분 비전센터 분당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T. 877.922.6679

한국어. 714.367.3046

www.caravancanopy.com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29)



세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인적자원과 성경적 원리(2)

A.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인적자원에 대한 성경적 원리도 종업원의 작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원리로 '황금률'로 불리는 말씀이다. 이 원리는 노사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B. 진실하라

이 일은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고 이 직업을 통해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과 영성이다. 따라서 기독교 경영자는 조직에 속한 종업원들이 이러한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 문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D. 일하기 싫어하는 자를 구제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게 싫어하거나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쓰여져 있다 이것은 일에 대한 본질이 긍정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입힌 사람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한 자는 더욱 가혹한 결과를 받아 마땅하다. 즉 현실적으로는 무과실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만으로는 직업적인 질병이나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부적절하다.

출애굽기 21장 1-3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법규를 나열하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히브리 종과 자유, 여종, 살인, 소와 소의 주인 등 다양한 적용이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소한에 지켜야 할 규정

적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E.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로마서 12장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결정해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다른 능력을 주신다.

기독교 경영자는 조직의 인적자원인 각 종업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자에게 주신 능력을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최대한 발휘하도록 개발하고 조직의 구조에 배치하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자의 몫이다.

F.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라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문제에 대해서도, 규약은 비의도적으로

을 성경을 통해서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경영자는 적어도 사회적 법률로 정한 규범만을 지켰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인적자원에 적용되는 성경적 원리의 출발점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독교 교리적 차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은 사망에서 단숨에 구원

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다. 특히 기업의 현장에서 종업원은 종업원의 입장에서, 경영자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사람 중심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성공전략이 숨어있다.

dr.jameskoo@yahoo.com

허준목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왕상4:20-24)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찬란하고 흥통한 복을 받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흥통함은 솔로몬왕이 생 각해 본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히브리원문에 보면, 강 조형 분사로 돼있는데 이것은 최고의 강조에 강조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렇습니다. 잠10:22,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곁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누리면서도 근심 없이 행복합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왕상4:24-28)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어떤 복입니까?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사는 축복"입니다. 포도 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성한 번영"과 "편안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늘 풍성하고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 편안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연히 살았다"는 미완료시제로

계속해서 안연히 잘 살았다"는 뜻으로 "안연하다"를 히브리말로 해석하면 요즘 우리가 잘 쓰는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내적으로는 "탄탄하고 확신에 차고 늘 믿음으로 잘 살았고", 외적으로는 "늘 안전하고 풍성하고 번영을 누리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솔로몬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므로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수 지혜와 충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왕상4:29)

오늘 살펴볼 말씀은 솔로몬이 온 세상에 명성이 자자한 정도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됐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교훈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와 충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드셔서 먼저 흥통한 복을 주시고 동시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의 지혜 "호크마"는 아주 실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통찰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목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왕상4:29)

"총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말로 "테부나"로,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어렵고 복잡해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이 배울수록 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서 놀라운 통찰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므로 어디에서나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나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왕상4:29-30)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주목할 것은 누가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되 어떻게 주십니까? 조금씩 주십니까? 아닙니다. "심히 많이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만 심히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넓은 마음까지도 바다의 모래같이 주십니다. 여기에서 "넓은 마음"이란 "지혜와 총명"을 다

받을 만한 그릇을 말합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나 구하지 아니하시고 후기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보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이 세상 그 어떠한 지식과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토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왕상4:31-34)

이 지혜와 총명은 나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천하 모든 왕들이" 이 지혜와 총명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사모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왔

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뜻은 "듣고 순종한다", 즉 "이 지혜에 굴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그 지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온 땅에 넘치고 그 도에 복종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경외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경영자는 개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개발 배치해야 재해보상은 사회 법률로 정한 규범이상의 책임의식 요구

기독교 경영자는 인적자원 측정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는 진실해야 한다. 화를 낼 때도 진실해야 한다(엡4:21-29). 조직 내에 조직원들의 인사과에 대한 측정

C. 일에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5-6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셨고 협력해서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신다(골3:22).

이것은 오늘날 시대에 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정립해야 한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맞게 세상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인간의 사명이다.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Columns include church names like '갈보리장로교회', '몽고메리교회', '빅스카운티장로교회', etc., along with pastors' names and contact details.

